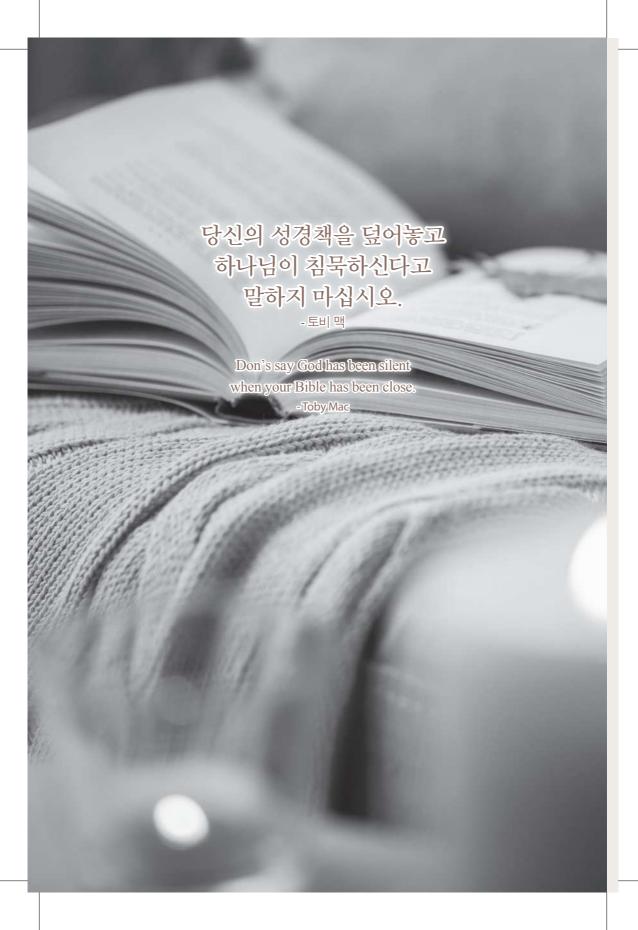
기쁨의 언덕으로 EdSant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HOSCINNA





Dear Lord 주님,

From November 2021, 11월에는

Time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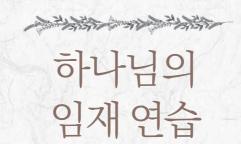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Brother Lawrence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회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면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희망합니다.

열세 번째 편지

THIRTEENTH I ETTER

동일한이에게:사랑은고통을경감시킵니다

오랜 기간 고생하는 당신을 보니 나 역시 괴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는 고통(griefs)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proofs)이기에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게 누그러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경우 사람의 치료법(human remedies)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the providence of GOD) 앞에 내려놓아야(resign)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다 내려놓고 완전히 신뢰할 때에만 당신을 고쳐 주시려고 그분은 기다리시나 봅니다. 당신의 모든 노력(all your cares)에도 불구하고 의사(physic)는 여태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당신의 병은 깊어만 가니, 하나님 손에 당신을 맡기고 그분께 모든 기대를 건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지난 편지에서 나는 하나님께선 때로 육체의 질병(bodily diseases)을 허락하셔서 영혼의 나쁜 상태(the distempers of the soul)를 고치시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용기(courage)를 내세요. 부득이한 일도 불평 없이 행하세요(make a virtue of necessity). 하나님께 당신의 고통을 없애 달라는 대

신,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오래, 굳게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 부탁하세요.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쉽지 않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선가장 만족스러워(most acceptable) 하십니다. 하나 님을 사랑하는 이들 또한 이를 달콤하게(sweet) 여기지요. 사랑은 고통을 경 감시킵니다(Love sweetens pains). 그러므로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는 그분을 위해 즐겁고 담대하게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나는 간청합니다. 모든 병(maladies)의 유일한 치료자(the only Physician)이신 그분을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세요. 그분은 고통받는 자의 아버지(the FATHER of the afflicted)시며,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infinitely)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consolation)을 찾지 않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곧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로서 당신을 돕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당신의 벗 된 자

열 네 번째 편지

FOURTH LETTER

하나님께서 그와 서신을 주고받는 이에게 베풀어주신 자비로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고난조차 달콤합니다

당신의 바람대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었다니 우리 주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나 역시 종종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 당시처럼 만족을 느꼈던 때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나는 어떤 고통도 없애 달라 기도하지 않고 담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with courage, humility, and love.) 그것을 견딜

힘을 위해 기도했지요. 아, 하나님과 더불어 고난을 겪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엔 고통은 너무도 클지 모릅니다. 고난을 견디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낙원입니다. 하여, 이 삶에서 우리가 낙원의 평화(the peace of paradise)를 누리려면, 우리 스스로 그분과의 친숙하고(familiar), 겸손하며(humble), 애정 어린(affectionate) 대화(conversation)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든 그분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예배당(spiritual temple)을 짓고서 그속에서 끊임없이 그분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며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면 무엇이든 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고난은 성유(unction)이자 위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그 시작이 매우 어렵다는 걸 나는 압니다. 우리는 순전히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두드리세요. 두드리며 견디면, 그분께선 그분의 합당한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오랜 세월 유예하셨던 것을 당신에게 즉시 베풀어주실 거라 나는 대답해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그분께 기도드리듯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어서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 통독본문3년 1독을을 위한오늘 통독 범위
- ②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 ③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01

January 금 Fri

지혜를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How do we increase our wisdom?

1 동독본문 Reading Plan 잠연 Proverbs 1-2장

3 새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4 여는기도 Opening Proved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활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A

2

백합기

1장은 잠언의 서언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자 시작이며 특히 젊은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깨달아 살의 원리 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살을 살기를 권연하고 있다. 2정은 1장에 이어 지혜가 주는 유익이 나오는데 그 지혜를 얻으라면 찾 고 구해야 하며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혜를 주심을 약속 한다.

잠언 2:1-

6대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체명을 네게 가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 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 에서 내심이며

7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 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 리라

내지샘플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Chapter 1 is the prelude of Proverbs: the feer of the Lord is the basis and beginning of knowledge; young people especially should learn the principles of life by understanding wisdom and instruction; and we are admonished to live life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Chapter 2 continues to elaborate on the benefits of wisdom. If we want to gain wisdom, we must seek it. And if we seek it, we will receive it as a gift from God.

Proverbs 2:1-12

- ¹ My son, if you receive my words and treasure up my commandments with you,
- ² making your ear attentive to wisdom and inclining your heart to understanding;
- ³ yes, if you call out for insight and raise your voice for understanding.
- 4 if you seek it like silver and search for it as for hidden treasures,
- 5 then you will understand the fear of the LORD and find the knowledge of God.
 6 For the LORD gives wisdom; from his mouth come
- knowledge and understanding;

 7 he stores up sound wisdom for the upright; he is a shield to those who walk in integrity,
- 8 guarding the paths of justice and watching over the way of his saints.
- ⁹Then you will understand righteousness and justice and equity, every good path;
- 10 for wisdom will come into your heart, and knowledge will be pleasant to your soul;
- ¹¹ discretion will watch over you, understanding will guard you,
- 12 delivering you from the way of evil, from men of perverted speech,

P Erosonu with War 말씀 속으로

>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 What should we do to gain wisdom? (2:2~4)

지혜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6절) From whom does wisdom

come? (2:6)

묵상 중에 만난 주님

-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 ③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 ▼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3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500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 ①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 ②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목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간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넓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영커리지한연연합감리교회 금원제(AK) 기쁨의 교회, 장준식(AL) 한연충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Wisdom is a gift from God and must be sought

장안의 히브라이 단어, '마산'은 '-와 같다', '비와'로 반역이 되어 삶에서 관찰된 일정한 배탁등의 교훈을 간결하게 담은 살해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자로는 이 는 '장에 말한 '인을 사용하여 마치 바늘로 찌르돌이 가르치는 일이만 뜻이 요. 솔로모을 비롯한 지혜자들은 살을 깊이 관생하면서 일정한 배턴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2명이서 솔로몬은 ''아이들이'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세들에게 건리하듯이 말하십니다. 권리 핵심은 '구하고 찾으나'는 겁니다. (이-4절) 선물을 구하고 조르는 자녀에게 주지 않을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도 구하는 자예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 7년1), 지혜를 연극하고 보다 보다는 소리를 할어야 하고 보 화를 찾듯이 찾으면 지혜도 가장 사건을 받는 가입니다. 그리나 우리 자신을 돌아 보면 의료 지혜를 구하기나 갖지 않는 자신을 말한다. 그리나 우리 자신을 되는 등 보면 의료 지혜를 구하기나 갖지 않는 자신을 말한다니다.

잠압 4:7에서는 지혜가 으뜸(supreme)이기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라도 명월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보화이며, 그것을 만든 차는 구하고 찾 고 결국 업계 됩니다. 그러나 용시에 제하는 하나님이 친히 주나는 선물이자(6 절), 그분이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알입니다. 자금까지 나에게 지혜가 없었다면, 새해에는 으름이며 보화인 지혜를 구하고 찾 으십시다.

The Hebrew word for proverbs is "mashel" and means "_ is the same as," it is revisited as "perable" and is an instruction succindly containing certain patterns of precepts observed in life. In Chinese, it is RE_3 Armicun, It consists of the word "Jam" which means "a needle" and "Eun" which means "spoken word." Combined it means to teach as if poking with a needle. People with visidom, including Solomon, deeply observed life and discovered cortain patterns existed. Solomon begins Chapter 2 with "My son", like when a father admonishes his children. The essence of the admonition is to "seek and search." (2:3-4)

There is no parent who would refuse to give a gift to a child who earnestly asks for one. Our Father in Heaven will give good gifts to those who ask: Him. (Matt 7:11) if we want to gain wisdom, then we must ask for it and seek God who is the source of visidom. We must raise our vicice and we must seek it as if seeking treasures. Then we will be given wisdom and understanding. But if we look at curselves, we might be surprised that we are not seeking or searching for visidom. If is because we do not treat visidom as a precious treasure though we know that we need wisdom.

Proverbs 4:7 says that wisdom is supreme: therefore, we should gain understanding even though it may cost all you below. Webom is treasure and those who believe that will seek, search, and ultimately gain it. But at the same time, wisdom is given by God and God is wisdom. (2:6) In other words, we cannot gain wisdom if we are separated from God. If we had no wisdom until now, let us seek and find the supreme being and treasure of wisdom as we welcome the New Year.

- 22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 ◆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 ⑤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문제없다

◀ 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 언제가좋을까요?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모임 장소 Tip! ✓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이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2021 November

11

기쁨의 <mark>언덕으로</mark>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달의주요일정

SUNDAY	MO	NDAY	TUE	SDAY
	1	에스겔 Ezekiel 33장 □	2	에스겔 Ezekiel 34장 □
7	8	에스겔 Ezekiel 39장 □	9	에스겔 Ezekiel 40장 □
14	15	에스겔 Ezekiel 45장 □	16	에스겔 Ezekiel 46장 □
21	22	아모스 Amosl 6장 □	23	아모스 Amosl 7장 □
28	29	요나 Jonah 3장 ロ	30	요나 Jonah 4장 ロ

WED	NESDAY	THUI	RSDAY	F	RIDAY	SAT	JRDAY
3	에스겔 Ezekiel 35장 □	4	에스겔 Ezekiel 36장 □	5	에스겔 Ezekiel 37장 □	6	에스겔 Ezekiel 38장 □
10	에스겔 Ezekiel 41장 🏻	11	에스겔 Ezekiel 42장 □	12	에스겔 Ezekiel 43장 □	13	에스겔 Ezekiel 44장 □
17	에스겔 Ezekiel 47-48장 🗆	18	아모스 Amosl 1-2장 □	19	아모스 Amosl 3-4장 □	20	아모스 Amosl 5장 □
24	아모스 Amosl 8-9장 □	25	오바댜 Obadiah 1장 ロ	26	요나 Jonah 1장 ロ	27	요나 Jonah 2장 □
				S M T 3 4 5 10 11 12 17 18 19	October W T F S	S M T N	1 2 3 4 8 9 10 11 5 16 17 18 12 23 24 25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에스겔 33-48장· 아모스·오바댜· 요나



에스겔은 누구입니까?

에스겔은 주전 BCE 623-22년경 태어나 주전 597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주전 593년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주전 571년까지 제사장으로 사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이

름 Yehezkel(히브리어)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서 들었고, 하박국과 스바냐 선지자를 알고 있었으며,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만났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자신이 경험한 전쟁의 패배,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속에서 맞닥 뜨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심판에 대한 바른 이해, 회 개, 포로기를 거친 새 출발의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정죄(1-32장, 주전 593-587년) 그리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가능성과 위로(33-48 장)의 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에스겔이 도전한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공동체에 던진 질문은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공감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왜 실패하였는가? 어떻게 포로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스라엘/예루살렘)을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으신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유다 공동체는 이 질문들 앞에서 죄절했지만, 에스겔서는 새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33장에서 에스겔의 메시지는 새로운 방향각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의 패 망은 새로운 회복과 자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한 출발 지점입니다. 실패, 포로기, 우리 눈에 정의롭지 않은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새 역사가 시작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34-3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약자들을 돌보고, 외롭고 낙담한 사람들을 격려하심으로,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38-39장에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론적 예언이며, 하나님 역사의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40-48 장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새 성전, 새 땅, 새 성읍에 대한 환상으로, 공평과 정의, 순결, 거룩함의 회복을 묘사합니다.

포로공동체에게 에스겔서는 신앙/종교적인 회복을, 다니엘서는 정치적인 회복을 전망하는데,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과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 (37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그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며, 낙심한 우리에게 주신 새 소망입니다.

에스겔서 아웃라인

- I. 심판의 예언(1-32장)
 - 1)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24장
 - 2)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5-32장
- Ⅱ.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미래 (33-48장)
 - 1) 파숫꾼으로 지명된 에스겔 33장
 - 2) 오시는 참목자 34장
 - 3) 하나님 나라의 재건 35-37장
 - 4) 침략자를 이긴 나라 38-39장
 - 5) 회복될 성전 40-48장

아모스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앗수르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이름은 "짐을 진자"라는 뜻인데, 왕족 출신 이사야나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와 다른 평범한이며, 농사를 짓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출신인 그는 하나

배경의 목자이며, 농사를 짓던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출신인 그는 하나 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송아지 신전이 있는 벧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당시 여로보암 2세(주전 787-747년)가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기에 종 교,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예언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우상숭배하는 대제사장 아마시야(아모스 7:10-17)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들은 아모스를 쫓아냅니다.

그는 어떻게 예언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바로 보고 회개해야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테네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울린 것처럼, 아모스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와 사치를 보고 마음이 격동되었 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 뇌물과 강요를 통하여 공정하지 못한 재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 판의 메시지는 시골 농사꾼 아모스를 예언사역의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아모스의 구조

- I. 여러 나라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1-2장)
- II. 북왕국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예언 (3-6장)
- III. 다섯편의환상(7-9장)
- IV. 온 이스라엘의 미래 (9:11-15장)

오바댜는 누구입니까?

예언서 가운데 가장 짧은 이 책의 제목은 예언자의 이름을 오바다 따라 오바댜(히. Obadyah)로 붙여졌고, 그 뜻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오바댜는 호세아(호 1:1)처럼 어느 왕들의 시대에 사역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기에, 그의 연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10-14절에 언급된 예루살렘의 약탈이 언제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추정 하게 되는데.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 편을 든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오바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언자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 에돔에 대한 심판과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심파은 원수를 갖는다는 의미보 다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으로 보아야 합니다. 야곱의 형(창 25:24-26)에서의후손(창 36:1)인에돔은이스라엘과가족관계였지만서로적대적이 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시작된 장자권 다툼의 경쟁관계에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였을 때, 거절함으로(민 20:14-21) 관계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문제는 후에 사울왕과 다윗왕의 에돔 정복전쟁으로 이어졌지만 에돔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결국 유다를 향한 공격(대하 28:17)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에돔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주제입니다.

오바댜의구조

요나

- I. 에돔에 대한 심판 1-16절
 - 1)에돔을향한공격1,2절
 - 2) 에돔의 자만 3, 4절
 - 3) 에돔의 전복 5-9절
 - 4) 유다에 대한 에돔의 증오 10-14절
 - 5) 여호와의 날과 에돔의 심판 15, 16절
- Ⅱ. 이스라엘의 승리와 회복 17-21절

요나이야기-은혜

요나서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다가 사흘 만에 물고기 배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

한 기록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라는 뜻으로 아가서에서 표현된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두 개의 장, 두 개의 막으로 구성된 상호 대칭적인 구조, 빼어난 은유와 비유, 수사적 기교는 역사적 기록이 아닌 문학 작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요나서의 주제 - 은혜 -에 대한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서 1:1-2과 3:1-2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은혜의 계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시(2장)는 요나의 신앙고백이며, 자신을 삼킨 큰 물고기가 심판이 아닌 구

원과 은혜의 통로로 이해되는 시점입니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회개와 헌신을 약속한 요나(2장)는 바로 3장과 4장에서 은혜를 경험한 후에도 순종의 삶을 살기 쉽지 않은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도합니다.

요나서에서 배우는 예수의 복음

요나서는 이스라엘 중심의 유일신 사상을 기반으로 언약 공동체의 안과 밖을 철저하게 구별해온 선민사상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대비되는 것도 특이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니느웨의 하나님이시며, 열국의 모든백성,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요나의 사역과 비교, 대비시키셨는데(마 12:38-45;눅 11:24-32),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언약공동체의 경계선이 더 넓어져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땅끝까지 전해야 하는 복음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야이며, 세상의 모든 어린 양을 위해 오신 분임을(요 1:6-14)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서의구조

- I. 요나의불순종과 큰고기 1장
- Ⅱ. 요나의기도와구출 2장
- Ⅲ. 요나의 전도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 3장
- IV. 요나의분냄-박넝쿨, 하나님의 교훈 4장

참고문헌: 독일성서공회 관주/해설 성경전서, 뉴 인터프리터 스터디 바이블, Jewish Study Bible

November 월 Mon

파수꾼의 사명

Mission of the watchman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3장



새498장(통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부(1-24장) 와 2부(25-32)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면 서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반면, 오늘 본문인 33장 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합 니다.

에스겔 33:1-10

1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 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 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3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 성에게 경고하되

4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 로 돌아갈 것이라

5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 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 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6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 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 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 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 으리라

7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 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8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 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 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9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 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 명을 보전하리라

10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 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Reading insight

The Book of Ezekiel consists of three parts. While the first (Chapters 1–24) and second parts (Chapters 25–32) proclaim the judgment of God as a price for the sins of Israel and surrounding nations, today's part from Chapter 33 to the end of the book deals with the redemption and restoration of Israel.

Ezekiel 33:1-10

-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² "Son of man, speak to your people and say to them, If I bring the sword upon a land, and the people of the land take a man from among them, and make him their watchman,
- ³ and if he sees the sword coming upon the land and blows the trumpet and warns the people,
- 4 then if anyone who hears the sound of the trumpet does not take warning, and the sword comes and takes him away, his blood shall be upon his own head.
- ⁵ He heard the sound of the trumpet and did not take warning; his blood shall be upon himself. But if he had taken warning, he would have saved his life.
- 6 But if the watchman sees the sword coming and does not blow the trumpet, so that the people are not warned, and the sword comes and takes any one of them, that person is taken away in his iniquity, but his blood I will require at the watchman's hand.
- 7 "So you, son of man, I have made a watchman for the house of Israel. Whenever you hear a word from my mouth, you shall give them warning from me.
- 8 If I say to the wicked, O wicked one, you shall surely die, and you do not speak to warn the wicked to turn from his way, that wicked person shall die in his iniquity, but his blood I will require at your hand.
- **9** But if you warn the wicked to turn from his way, and he does not turn from his way, that person shall die in his iniquity, but you will have delivered your soul.
- 10 "And you, son of man,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have you said: 'Surely our transgressions and our sins are upon us, and we rot away because of them. How then can we liv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스라 엘 백성들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 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1절)

What method is there for the people of Israel, who disobeyed God, to be redeemed and restored? (33:11)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감리교인 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As a Methodist who tries to live a life of sanctification, what kind of voice should you proclaim to the world?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당신이 만약 파수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If you were the watchman, what would you do?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 한 가지를 상상해 보라고 하십니다. "만약 네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면,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졌는데, 개인적으로 바쁜 일을 하고 있던 그때에 적과 같은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용무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경보를 울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 아마 대부분 "당연히 경보를 울려 야지"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리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중학생인 저는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서 소매치기가 한 여자분의 핸드백을 찢어 지갑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 "소 매치기야!"라고 외쳐야 하는데 너무 무섭고 떨려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리니까, 위험하니까 등의 위안이 되는 말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말해야 함에도 말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전 하지 않고, 죄악을 보면서도 눈을 돌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지 못 하는 모습 말입니다

아니 말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정의하여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n today's scripture, God suggested to Ezekiel to imagine "If you were the watchmen of the gate, what would you do when you saw the enemies approaching?" What if the same question was asked of you? "If you were the watchman, and while you wer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you saw dangers like enemies approaching your gate, what would you do?" "Is the personal matter you were taking care of a higher priority? Or is blowing a trumpet to warn the people higher priority?" To this question, most people would say, "Of course we must blow the trumpet first because that is the duty of the watchman." But in actuality, we often do not do that.

A long time ago, I was in middle school and waiting in line to catch a bus. Then suddenly I witnessed a crime where a pickpocket snatched a wallet out of a handbag of a lady who was standing right next to me. I should have screamed "a pickpocket!" but I could not say anything out of fear and surprise. Of course, there are comforting excuses such as I was too young or it was too dangerous, etc. But how often do we not say things when we should have? I am talking about times when we do not proclaim the Gospel, when we turn away from the scenes of sins, and when we do not share the pains and wounds of others.

How often do we say things by defining and deciding matters relying only on our own thoughts and minds? I hope and pray that we would be able to say what God has in His mind, especially the justice of God and the Gospel, as we expect God would say 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4	
u		

	_		
A	9	h.	
u	4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화 Tue

주께서 양 떼를 구워하시리라

Our LORD will redeem the flock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4장



새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양들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 없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데 관심 있는 목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고하시며, 이제는 양 떼를 더 이상 목자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구 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7-16

7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8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 라 내 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 하였도다

9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 어다

10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 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 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11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 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 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14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 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 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 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 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 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 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Reading insigh

God warned the shepherds who were interested in only their own greed not paying attention to take care of the flocks. God proclaimed that He would no longer rely on the shepherds to take care of the flocks but that God Himself would feed and redeem the flocks.

Ezekiel 34:7-16

- 7"Therefore, you shepherds, hear the word of the LORD:
- 8 As I live, declares the Lord GOD, surely because my sheep have become a prey, and my sheep have become food for all the wild beasts, since there was no shepherd, and because my shepherds have not searched for my sheep, but the shepherds have fed themselves, and have not fed my sheep,
- 9 therefore, you shepherds, hear the word of the LORD:
- 10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the shepherds, and I will require my sheep at their hand and put a stop to their feeding the sheep. No longer shall the shepherds feed themselves. I will rescue my sheep from their mouths, that they may not be food for them.
- 11 "For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I myself will search for my sheep and will seek them out.
- 12 As a shepherd seeks out his flock when he is among his sheep that have been scattered, so will I seek out my sheep, and I will rescue them from all places where they have been scattered on a day of clouds and thick darkness.
- 13 And I will bring them out from the peoples and gather them from the countries, and will bring them into their own land. And I will feed them on the mountains of Israel, by the ravines, and in all the inhabited places of the country.
- 14 I will feed them with good pasture, and on the mountain heights of Israel shall be their grazing land. There they shall lie down in good grazing land, and on rich pasture they shall feed on the mountains of Israel.
- 15 I myself will be the shepherd of my sheep, and I myself will make them lie down, declares the Lord GOD.
- ¹⁶ I will seek the lost, and I will bring back the strayed, and I will bind up the injured, and I will strengthen the weak, and the fat and the strong I will destroy. I will feed them in justic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목자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4절) Why were the shepherds punished by God? (34:3-4)

당신 주변에,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해 줄수 있을까요?

Try to find people around you who would need your help. What can you do for them today?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Jesus is the role model of good shepherd

오늘 본문 8절에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내 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물론 그 목자들 역시 양 떼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름 돌본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목자라는 이름으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까요?

3-4절입니다.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때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이사야가 전했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 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In today's scripture Ezekiel 34:8, we detect God's sadness. "My flock lacks a shepherd and so has been plundered and has become food for all the wild animals." Of course, those shepherds may have offered food to the flock, may have taken care of the flock in their own way, and took care of the flock in the name of a shepherd. But God declared that "there was no shepherd" although there were shepherds but in name only. What kind of shepherds were they causing God not to give them credit?

Ezekiel 34:3–4 has the answer. "You eat the curds, clothe yourselves with the wool and slaughter the choice animals, but you do not take care of the flock. You have not strengthened the weak or healed the sick or bound up the injured. You have not brought back the strays or searched for the lost. You have ruled them harshly and brutally."

These verses remind us of the image of Jesus Christ as depicted by the prophet Isaiah.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Luke 4:18–19). I hope and pray that you will become the hope of the world as we try to emulate Jesus Christ, being led and renewed afresh by the Holy Spir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수 Wed

에돔에 대한 심판

Judgment against Edom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5장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세일산, 즉 에돔 족속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품고 있는 원 한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5:1-9

1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 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 하여

3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 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4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 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5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6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 가 너를 따르리라

7내가 세일 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8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네 여러 멧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 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9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네 성읍들에 다시는 거 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Reading insight

The Sovereign Lord said through the prophet Ezekiel that Mount Seir, that is the tribe of Edom, would become a desolate waste. The reason for their judgment was because they refused to help Israel when Israel was facing difficulties because of old grievances against Israel even though they were related by blood.

Ezekiel 35:1-9

- ¹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 2 "Son of man, set your face against Mount Seir, and prophesy against it,
- 3 and say to it,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you, Mount Seir, and I will stretch out my hand against you, and I will make you a desolation and a waste.
- ⁴ I will lay your cities waste, and you shall become a desolation,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 ⁵ Because you cherished perpetual enmity and gave over the people of Israel to the power of the sword at the time of their calamity, at the time of their final punishment,
- 6 therefore, as I live, declares the Lord GOD, I will prepare you for blood, and blood shall pursue you; because you did not hate bloodshed, therefore blood shall pursue you.
- ⁷ I will make Mount Seir a waste and a desolation, and I will cut off from it all who come and go.
- 8 And I will fill its mountains with the slain. On your hills and in your valleys and in all your ravines those slain with the sword shall fall.
- ⁹ I will make you a perpetual desolation, and your cities shall not be inhabite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돔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은 무 엇입니까? (14-15절)

What were the details of the judgment against Edom? (35:14–15)

내 안에 분노(화)가 남아있는 경 우가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화 나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방법대로라면, 어떻게 풀 어가야 할까요?

Is there any anger left in me? What caused my anger? How can I resolve it if I deploy the way of the Lord?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누군가를 향한 분노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Anger toward someone eventually comes back to me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 이후, "증오범죄"가 많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오범죄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 "편견", "혐오"가 동기가 되어서 범죄행위로 까지 이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한마디로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야곱을 향해 질투하고 분노했으며, 그의 후손들 역시 대를 이어 이스라엘을 증오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 앗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돕기는커녕 그들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그들의 멸망 당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죄라고 하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 화를 내고 있지 않으신 가요? 여러 의료기관들이 낸 보고서에 의하면 화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에도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심장마비나 뇌졸증의 확률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아니더라도, 화를 내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와 용서의 모습으로 바꾸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것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Since the breakout of the COVID-19 pandemic, news media has reported a sizable increase of "hate crimes". The so-called hate crime stems from "anger," "prejudice," or/and "hate" toward someone and may lead to criminal acts. Though not the level of criminal acts, we can easily find "people in anger." Our homes and churches are no exception.

In today's scripture, Edom were the descendants of Esau. Esau traded away his right as the first-born son to his younger brother Jacob for a bowl of bean porridge. Hence Jacob inherited the right to be blessed. But Esau refused to accept the consequences and remained angry and jealous toward Jacob and hatred of Israel also remained i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f Esau's descendants. Much time had passed when northern Israel was destroyed by Assyria and southern Israel was destroyed by Babylon. Edom was watching all of this from the sideline but turned their face away from Israel, not helping Israel or Judah at all. Instead, they rejoiced in and enjoyed the demise of Israel. God called this a sin.

Do you have anger towards someone now? According to many medical journal reports, if anger is kept within you, it raises blood pressure, negatively affects diabetes, and also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heart attacks and strokes. Aside from these dangers, when we reflect upon the anger in ourselves and can turn it into prayer and forgiveness, we will see and understand clearly what God wants us to do.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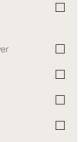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목 Thu

이스라엘의 회복

Restoration of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6장



새420장(통212장) 너 성결키 위해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5장에서 에돔의 세일산이 황폐해질 것임을 말씀했다면, 36장 은 이미 황폐해진 이스라엘 산들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으로 다시금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22-32

22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 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 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 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 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 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레를 지켜 행할지라

28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9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워하고 곡식이 풍 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30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 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 로 밉게 보리라

32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Reading insigh

Whereas Chapter 35 mentioned that Mount Seir would be desolate waste, Chapter 36 prophesied that the mountains that became desolate would be cleaned up by God and be completely restored.

Ezekiel 36:22-32

- 22 "Therefore say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It is not for your sake, O house of Israel, that I am about to act, but for the sake of my holy name, which you have profaned among the nations to which you came.
- ²³ And I will vindicate the holiness of my great name, which has been profaned among the nations, and which you have profaned among them. And the nations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declares the Lord GOD, when through you I vindicate my holiness before their eyes.
- 24 I will take you from the nations and gather you from all the countries and bring you into your own land.
- **25** I will sprinkle clean water on you, and you shall be clean from all your uncleannesses, and from all your idols I will cleanse you.
- **26** And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a new spirit I will put within you. And I will remove the heart of stone from your flesh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 ²⁷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cause you to walk in my statutes and be careful to obey my rules.
- **28** You shall dwell in the land that I gave to your fathers, and you shall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 **29** And I will deliver you from all your uncleannesses. And I will summon the grain and make it abundant and lay no famine upon you.
- **30** I will make the fruit of the tree and the increase of the field abundant, that you may never again suffer the disgrace of famine among the nations.
- 31 Then you will remember your evil ways, and your deeds that were not good, and you will loathe yourselves for your iniquities and your abominations.
- ³² It is not for your sake that I will act, declares the Lord GOD; let that be known to you. Be ashamed and confounded for your ways, O house of Israe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8-12절)

In the process of Israel's restoration, what was actually restored? (36:8–12)

지금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 입니까? 무엇이 당신과 그(하나 님, 아내/남편, 자녀, 성도)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What are you missing now? What made the rift between you and them (God, wife/husband, children, and church friends) wider?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Does spring come to the stolen fields?

일제 강점기에 한민족의 비참한 심정을 표현했던 시인 이상화는 그의 대표 적인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통해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봄이 온 그 땅은 더 이상 평화도 기쁨도 없는 빼앗겨 버린 남의 땅이 되었다 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키며 현실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이 시는 또 다른 의미에서 널리 읽혀 지고 있다 합니다. 아마도 팬데믹으로 인한 아픔과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팬데믹 이후 에 다가올 우리들의 삶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이 시의 물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 들도, 산도 모두 빼앗겨 버린 암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런 외형적인 상실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빼앗긴 들에 봄이 오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 영을 이스라엘에 두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답고 따사로운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Poet SangHwa Lee, sympathetically expressed the miserable feelings of Koreans in his best-known poem called "Will Spring come on the stolen fields?" Through the poem, the poet expressed the pains of reality while reminding the readers that there was no peace or joy because our land had become the lost land in spite of the fact that Spring had come. Since the pandemic, this poem is being widely read again in a different vein. Perhaps the pains and difficulties of the pandemic are well reflected in the poem. In other words, our anxiety in life coming after the pandemic is well reflected in the poem.

Then, in the midst of Israel's reality as described in today's scripture, what kind of meaning does the question in the poem convey? As a matter of fact, the reality of Israel was quite desperate because their valleys and mountains were seized by Babylon. But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Israel had lost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external materials. They lost "the Holy Name of the Lord."

Thus, if "Spring has to come to their stolen land," more than anything else, the Holy Name of the Lord must be restored. Therefore, God declared that He would cleanse Israel of all things dirty and idolatry by giving them fresh minds through the new spirit that God would plant in Israel. God would make Israelites obey the rules and laws of God. I pray and bless that a warm and beautiful spring will come to your lif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ᄀᅼᄃᇬ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November 금 Fri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Can these bones come back to lif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7장



새40장(통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특히 에스겔에게 보 이신 '마른뼈의 환상'을 통해 유다와 이스라엘은 새롭게 세워질 것이며 이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에스겔 37:1-14

1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3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 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 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속에 생기는 없더라

9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 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 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 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 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 가게 하리라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 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4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류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The word of restoration of Israel continues. Especially through "the vision of dry bones" shown to Ezekiel, God proclaimed that Judah and Israel would become new and would know God.

Ezekiel 37:1-14

- ¹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and he brought me out in the Spirit of the LORD and set me down in the middle of the valley; it was full of bones.
- ² And he led me around among them, and behold, there were very many on the surface of the valley, and behold, they were very dry.
- ³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And I answered, "O Lord GOD, you know."
- ⁴ Then he said to me, "Prophesy over these bones, and say to them, O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 ⁵ Thus says the Lord GOD 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you, and you shall live.
- ⁶ And I will lay sinews upon you, and will cause flesh to come upon you, and cover you with skin, and put breath in you, and you shall live,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 ⁷ So I prophesied as I was commanded. And as I prophesied, there was a sound, and behold, a rattling, and the bones came together, bone to its bone.
- ⁸ And I looked, and behold, there were sinews on them, and flesh had come upon them, and skin had covered them. But there was no breath in them.
- ⁹ Then he said to me, "Prophesy to the breath; prophesy, son of man, and say to the breath, Thus says the Lord GOD: Come from the four winds, O breath, and breathe on these slain, that they may live."
- 10 So I prophesied as he commanded me, and the breath came into them, and they lived and stood on their feet, an exceedingly great army.
- 11 Then he said to me, "Son of man, these bones are the whole house of Israel. Behold, they say, 'Our bones are dried up, and our hope is lost; we are indeed cut off.'
- 12 Therefore prophesy, and say to them,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will open your graves and raise you from your graves, O my people. And I will bring you into the land of Israel.
- 13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open your graves, and raise you from your graves, O my people.
- 14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and you shall live, and I will place you in your own land. Then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I have spoken, and I will do it, declares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려 하실 까요? (13-14절)

Why did God want to revive Israel that was dead as dry bones? (37:13–14)

"주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 일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Do you have experience with "what the Lord accomplished?" How have those things changed you?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선피터(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신뢰함으로 일어서라 Stand Up by Trusting God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골짜기의 황량함과 그곳에 가득 차 있는 수많은 뼈들. 뼈가 말랐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고통과 절망 그이상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죽어진 채로 보내져야만 했던 그 삭막하고 두려웠던 공간, 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던 그때, 그 적막을 깨는 하나님의 물음이 그에 게 던져집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가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대답일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놀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뼈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 뼈를 생명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으로 보시는 한, 마른 뼈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뼈가 살아났을 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몸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The prophet Ezekiel was led by God to the valley that was full of dry bones. Dear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try to imagine. What kind of place was the valley? The desolate valley full of dry bones means that there was something more than pains and desolation of death. The space was a symbol of isolation and dread, having been dead and abandoned for a long time without any change. It was a reality that no trace of hope could be found anywhere.

In the middle of absolute silence, an awakening question comes to him from God. "Can these bones live?" If you were him, how would you answer? "These bones cannot live" would be a more realistic and normal answer. That is why the vision of Ezekiel was that much more surprising.

Whereas we feel certain that the dry bones are dead, God viewed them as alive. As long as our Lord looked at the dry bones as alive, the dry bones will definitely live again. But we must remember one thing. There was one thing missing when the dry bones became alive again. The body became alive but there was no spirit of God. Dea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hen God is with you, all things are possibl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November 토 Sat

곡의 침략

Invasion by Gog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8장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8-39장에서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인 '곡'이 이 스라엘을 침략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는 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38:10-18

10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11말하기를 내가 평워의 고을들로 올라 가리라 성벽 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 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 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14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 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 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15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16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 게 하려 함이라

17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 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18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 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s 38 and 39 prophesied about the invasion of Israel by King "Gog" who ruled Meshech and Tubal. But the Lord will face them and pass judgment against them.

Ezekiel 38:10-18

- 10 "Thus says the Lord GOD: On that day, thoughts will come into your mind, and you will devise an evil scheme
- 11 and say, 'I will go up against the land of unwalled villages. I will fall upon the quiet people who dwell securely, all of them dwelling without walls, and having no bars or gates,'
- 12 to seize spoil and carry off plunder, to turn your hand against the waste places that are now inhabited, and the people who were gathered from the nations, who have acquired livestock and goods, who dwell at the center of the earth.
- 13 Sheba and Dedan and the merchants of Tarshish and all its leaders will say to you, 'Have you come to seize spoil? Have you assembled your hosts to carry off plunder, to carry away silver and gold, to take away livestock and goods, to seize great spoil?'
- 14 "Therefore, son of man, prophesy, and say to Gog, Thus says the Lord GOD: On that day when my people Israel are dwelling securely, will you not know it?
- 15 You will come from your place out of the uttermost parts of the north, you and many peoples with you, all of them riding on horses, a great host, a mighty army.
- **16** You will come up against my people Israel, like a cloud covering the land. In the latter days I will bring you against my land, that the nations may know me, when through you, O Gog, I vindicate my holiness before their eyes.
- 17 "Thus says the Lord GOD: Are you he of whom I spoke in former days by my servants the prophets of Israel, who in those days prophesied for years that I would bring you against them?
- 18 But on that day, the day that Gog shall come against the land of Israel, declares the Lord GOD, my wrath will be roused in my ang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 Why did God allow Israel to be attacked? (38:16)

아픔과 절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신적 있으신가요? 그 일이 어떻게 여러분을 바꾸어 놓았습 니까?

Have you experienced finding the will of God in the middle of your pain and desperation? How did that experience transform you?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일(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곡'소리 "Sobbing" cry

에스겔서 38장에 나온 '곡'이라는 자가 일으킨 '마곡'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나오는 '곡'과 '마곡'을 연결시키곤 합니다. 포로에서 회복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곡'에 관한 이 기록이 오랜 시간을지나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예언에 대한 해석은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곡'을 보노라면 이스라엘이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곡소리'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키는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 곡을 택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도, 또 그러한 곡을 멸망시키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결과는 더 이상 '곡소리'가 아닌 '곡조' 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곡소리'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도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곡조'로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As I watched the war at "Magog" raged by "Gog" in Ezekiel 38, I connect them to "Gog" and "Magog" mentioned in Revelation 20:8. The record of "Gog" who was used to attack Israel that was just restored from the slavery of Babylon is connected after a long time to and reappeared again as prophesy in Revelation. That is certainly very interesting. The interpretation of all prophecies should be treated with care and prudence, but one thing is clear about these two prophecies. Both are about the words of God's judgment against those who opposed God.

When we look at "Gog" who was attacking Israel in today's scripture, Israel had absolutely no chance to win. In short, the situation facing Israel now was like a "sobbing" cry. But there was one element to reverse the situation. That was whether "God was with them or not." It was God who chose Gog to attack Israel and it was also God who destroyed Gog. All of this was "to show that God was alive and to give glory to God."

Therefore, when God is with us the result will change from a "sobbing cry" to a "melody." I hope that you will find the will of God in the midst of your "sobbing cry." And through the work of God who could reverse even such a dire situation, I hope and bless that you would declare "glory be to God" with "melod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07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삶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

유기성목사(선한목자교회, 한국)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삶의 전체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정이나 교회,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낙담합니다. "오늘은 최악이야!"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어!"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탄식하고 합니다.

어떤 때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는데도 원인을 알수 없는 염려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했을 때, 욥도 그런 불길한 생각에 시달렸었습니다: 욥 3:25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9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으면 우리는 살맛을 잃습니다. 99가지 기뻐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슬픈 일이 생기면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만약 다시 살 수 있다면 잘 살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입니다. 주인공의 집안 남자들에게 '과거로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 지나간 과거를 몇 번이고 다시 살아보는 이야기가 영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변호사인데 하루는 가장 친한 친구가 직장 상사에게 부당한 꾸지람을 당하는 일로 불쾌함을 느낍니다. 그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는데 다른 일로 정신이 팔린 채로 눈길 한번 안주고 음식을 받았습니다. 급한 일정으로 열차를 잡기 위해 역 안에서 뛰어야 했으며, 집에 오는 지하철

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틀어놓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짜증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너무나 힘들고 짜증 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를 다시 살아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친구가 부당한 꾸지람을 당할 때 주인공은 상사 몰래 "바보"라고 쓴 종이를 친구에게 보여줍니다.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살 때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역에서 뛰어야 했을 때, 아름다운 옛건물의 웅장한 아치형 천장에 감탄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옆 사람이 틀어놓은 음악을 즐기며 따라 불렀습니다. 주인공이 이렇게 하자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루가 마친 후 "오늘은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번만 살아 보아도 힘들게 하는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나두 번살아볼수는 없습니다. 두 번살아본다고 완벽한 삶을살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는 떠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힘든 시간도 얼마든지 다르게 살수 있습니다. 밤이라고은 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원망만 하지 말아야합니다. 매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감추어진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 속에서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바라보아야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삶의 귀한 선물들을 맛볼수 있습니다.

[예수를 입는 시간]에서 켄 시게마츠는 주례를 부탁하는 커플에게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달콤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쁜 가운데서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인 이 선물을 '맛볼'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좋은 날이 정신없이 지나가버리고 말 겁니다."

오늘 마음의 준비 없이 무턱대고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해야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야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사실은 주님과 만의시간임을 알아야합니다. 이렇게 매일 매 순간을 살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일기로 기록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November 월 Mon

곡의 멸망

The destruction of Goa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39장



새300장(통406장) 내 맘이 낙심되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이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곡의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 이 시작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에스겔 39:1-4. 10-16

1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 발 왕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2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 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3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4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 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10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 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 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 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 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그 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 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 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 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

12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13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 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 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 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 보되

15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16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declares Gog that invaded Israel would be completely destroyed. And at the same time of Gog's judgment, it prophesies the beginning of the restoration of Israel.

Ezekiel 39:1-4, 10-16

- 1 "And you, son of man, prophesy against Gog and say,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am against you, O Gog, chief prince of Meshech and Tubal.
- ² And I will turn you about and drive you forward, and bring you up from the uttermost parts of the north, and lead you against the mountains of Israel.
- ³ Then I will strike your bow from your left hand, and will make your arrows drop out of your right hand.
- ⁴ You shall fall on the mountains of Israel, you and all your hordes and the peoples who are with you. I will give you to birds of prey of every sort and to the beasts of the field to be devoured.
- 10 so that they will not need to take wood out of the field or cut down any out of the forests, for they will make their fires of the weapons. They will seize the spoil of those who despoiled them, and plunder those who plundered them, declares the Lord GOD.
- 11 "On that day I will give to Gog a place for burial in Israel, the Valley of the Travelers, east of the sea. It will block the travelers, for there Gog and all his multitude will be buried. It will be called the Valley of Hamon-gog.
- 12 For seven months the house of Israel will be burying them, in order to cleanse the land.
- ¹³ All the people of the land will bury them, and it will bring them renown on the day that I show my glory, declares the Lord GOD.
- 14 They will set apart men to travel through the land regularly and bury those travelers remaining on the face of the land, so as to cleanse it. At the end of seven months they will make their search.
- ¹⁵ And when these travel through the land and anyone sees a human bone, then he shall set up a sign by it, till the buriers have buried it in the Valley of Hamon-gog.
- 16 (Hamonah is also the name of the city.) Thus shall they cleanse the l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사람을 택하여 지면에 남아 있는 시체를 매장하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14, 16절)

Why are some men selected and deployed to bury those that remain on the ground? (39:14, 16)

당신은 어떠한 반전을 꿈꾸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What kind of reversal do you dream of? How does it relate to Go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일(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반전 드라마 A plot twist

강력한 힘을 가진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만 해도 이런 결과가 올 줄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를 소망하며 아무런 전투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탈취하고 겁탈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은 어 떻습니까? 물질과 권력과 명예의 공격을 받으며 과연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치이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패배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9-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곡'의 부대의 멸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치고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시겠다 합니다. 그들의 무기를 태우는데 7년 동안 불태우고, 그 사람들을 하몬곡의 골짜기에 매장하는데 7개월 동안 매장한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완전한 숫자인 7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완전한 반전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기대합시다.

When the mighty Gog invaded Israel, nobody could imagine the result. Israel was totally unprepared to defend the attacks because Israel was hoping for peace and was not preparing for any battle. Gog will plunder and loot Israel. How is this world treating you? How can we defend ourselves against the attack of material, power, and prestige? Unless we live as they do, we may be pushed aside, stumble, be injured, or be disappointed.

But that is not a defeat. 2 Corinthians 6:9–10 says, "known, yet regarded as unknown, dying, and yet we live on; and yet not killed;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nd yet possessing everything."

The destruction of the army of Gog in today's scripture is devastating beyond our imagination. God declared that Gog would be defeated and their dead bodies would be devoured by rough birds and wild animals. God said that it would take 7 years to burn their weapons and it would take 7 years to bury their bodies in the valley of Hamon Gog. Here specifically the perfect number 7 was used repeatedly. That means God intended a complete reversal of the drama. Do you trust the power of God? Let us expect complete reversal of drama in our l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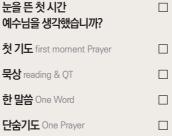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4	
u		

	_	
A	9	ħ.
Ų	_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November 화 Tue

이상 중에 본 새 성전

Visions of the ideal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0장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0-48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새 성전과 새로운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은 성전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새롭고 이상적인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바깥 부 분들. 특히 뜰과 담과 성전으로 통하는 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 니다.

에스겔 40:1-4, 10-16

1우리가 사로잡힌 지 스물다섯째 해, 성이 함락된 후 열넷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 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2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 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 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3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 같이 빛 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 고 문에 서 있더니

4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 을 뉴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 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 는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10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 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 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11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열 척이요 길이가 열세 척이며

12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여섯 척이요 저쪽도 여섯 척이며

13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 가에서 저 방 지붕 가까지 너비가 스물다섯 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 대되었으며

14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스무 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15바깥 문 통로에서부터 안 문 현관 앞까지 쉰 척이며 16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 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여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Reading insight

The contents contained in Chapters 40 through 48 are regarding the new temple and new law revealed to Ezekiel through his vision. The temple that Ezekiel saw was a new and ideal Jerusalem where the temple was the center of the city. Today's scripture deals with the outside area of the temple, especially the courtyard, the walls, and the gate that leads to the temple.

Ezekiel 40:1-4, 10-16

- ¹ In the twenty-fifth year of our exil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n the tenth day of the month, in the fourteenth year after the city was struck down, on that very day, the hand of the LORD was upon me, and he brought me to the city.
- ² In visions of God he brought me to the land of Israel, and set me down on a very high mountain, on which was a structure like a city to the south.
- ³ When he brought me there, behold, there was a man whose appearance was like bronze, with a linen cord and a measuring reed in his hand. And he was standing in the gateway.
- ⁴ And the man said to me, "Son of man, look with your eyes, and hear with your ears, and set your heart upon all that I shall show you, for you were brought here in order that I might show it to you. Declare all that you see to the house of Israel."

And behold, there was a wall all around the outside of the temple area, and the

- 10 And there were three side rooms on either side of the east gate. The three were of the same size, and the jambs on either side were of the same size.
- 11 Then he measured the width of the opening of the gateway, ten cubits; and the length of the gateway, thirteen cubits.
- 12 There was a barrier before the side rooms, one cubit on either side. And the side rooms were six cubits on either side.
- 13 Then he measured the gate from the ceiling of the one side room to the ceiling of the other, a breadth of twenty-five cubits; the openings faced each other.
- 14 He measured also the vestibule, twenty cubits. And around the vestibule of the gateway was the court.
- 15 From the front of the gate at the entrance to the front of the inner vestibule of the gate was fifty cubits.
- **16** And the gateway had windows all around, narrowing inwards toward the side rooms and toward their jambs, and likewise the vestibule had windows all around inside, and on the jambs were palm tree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 시어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시 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 What did God show Ezekiel and ask him to convey to Israel? (40:4)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게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까? Dear brothers and sisters, how is your church restoring worship service?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True worship must be restored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언젠가 그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격려를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는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역시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 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 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 대 속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의해 디자 인되어지고 만들어질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역시 성전에 대해, 예배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Post Pandemic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시킬 것인가?" 분명한 것은,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 달라질 것입니다.

The name Ezekiel means "God will make him strong." And he was the prophet who delivered the message of comfort and encouragement to the people of Israel that they too would someday be made strong by God. The temple had a special meaning to the Israelites. Until then they experienced the presence of God at the temple. But in the land of Babylon where they were taken to as prisoners, the temple no longer existed.

This meant that the presence of God also was gone. At that time, God fed Ezekiel the Word of God and told him to proclaim the Word. He was inviting them to a new era when the presence of God could be experienced through the Word. At the very center, there was the new temple that would be designed and shaped by God

Since the pandemic, many churches were unable to have in-person worship services at the churches. As a substitute, we had online worship services and, as a result, we began to develop new thoughts and minds about sanctuary and worship service. Now as we begin a new era called Post-Pandemic we are standing at a very important watershed point. "How can we revitalize the worship service?" What is clear is that the restoration of this worship will also bring about the restoration of our live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November 수 Wed

성전의 내부

Interior of the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1장



새490장(통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오늘 본문은 새 성전의 내부, 즉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그 부속건 물인 골방과 성전의 서쪽 건물, 그리고 바깥뜰의 나무 재단들을 중심으로 측량이 이어집니다.

에스겔 41:1-11

1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 니 이쪽 두께도 여섯 척이요 저쪽 두께도 여섯 척이 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2그 문 통로의 너비는 열 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 비는 다섯 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다섯 척이며 그 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마흔 척이요 그 너비 는 스무 척이며

3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 니 두께는 두 척이요 문 통로가 여섯 척이요 문 통로 의 벽의 너비는 각기 일곱 척이며

4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스무 척이요 너비는 스무 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5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여섯 척이며 성전 삼 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네 척이며

6골방은 삼 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서른 이라 그 삼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 는데 성전 벽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7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으므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 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 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8내가 보니 성전 삼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밑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여섯 척인데

9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다섯 척이 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10성전 골방 삼면에 너비가 스무 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11그 골방 문은 다 빈 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 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 려 있는 빈 터의 너비는 다섯 척이더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deals with the interior of the temple: the sanctuary and the Most Holy Place, the annex building side rooms and the west side annex building of the temple. The measurements continue to the outer courtyard centered around trees.

Ezekiel 41:1-11

- ¹ Then he brought me to the nave and measured the jambs. On each side six cubits was the breadth of the jambs.
- ² And the breadth of the entrance was ten cubits, and the sidewalls of the entrance were five cubits on either side. And he measured the length of the nave, forty cubits, and its breadth, twenty cubits.
- ³ Then he went into the inner room and measured the jambs of the entrance, two cubits; and the entrance, six cubits; and the sidewalls on either side of the entrance, seven cubits.
- ⁴ And he measured the length of the room, twenty cubits, and its breadth, twenty cubits, across the nave. And he said to me, "This is the Most Holy Place."
- ⁵ Then he measured the wall of the temple, six cubits thick, and the breadth of the side chambers, four cubits, all around the temple.
- 6 And the side chambers were in three stories, one over another, thirty in each story. There were offsets all around the wall of the temple to serve as supports for the side chambers, so that they should not be supported by the wall of the temple.
- ⁷ And it became broader as it wound upward to the side chambers, because the temple was enclosed upward all around the temple. Thus the temple had a broad area upward, and so one went up from the lowest story to the top story through the middle story.
- 8 I saw also that the temple had a raised platform all around; the foundations of the side chambers measured a full reed of six long cubits.
- **9** The thickness of the outer wall of the side chambers was five cubits. The free space between the side chambers of the temple and the
- ¹⁰ other chambers was a breadth of twenty cubits all around the temple on every side.
- 11 And the doors of the side chambers opened on the free space, one door toward the north, and another door toward the south. And the breadth of the free space was five cubits all arou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에스겔이 들어가지 못하고 천사 혼자 들어간 곳은 어디인가요? (3-4절)

What place could only the angel enter but not Ezekiel? (41:3-4)

거룩한 사회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들은 어떤 은총의 도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 성찬, 예배, 기도 등)

In order to fulfill social sanctification, what kind of means of grace are you using? (Eg: Holy Sacrament, worship service, prayer, etc.)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미연합감리교회, 한동수(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

우리는 거룩한 성전입니까?

Are we the holy temple?

에스겔이 성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성전은 성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은 "출입문, 바깥뜰, 안뜰, 번제단, 물두멍, 현관, 성소, 지성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한 성전은 "현관과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천사와 함께 일반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놓여 있는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를 측량한 것을 비교해보면, 지성소가 성소보다 벽은 더 두 껍고 통로는 더 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장소인 지성소가 어떤 장소보다도 더 거룩하게 구별되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의 세부 규격을 통해서도 그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는 얼마나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Ezekiel arrived at the temple. Here the temple does not mean the whole temple. At the time, the temple consisted of "Entrances, outer courtyard, inner courtyard, burn altar, laver, porch, sanctuary, and the Most Holy Place," but in today's scripture, the temple meant "the porch, sanctuary and the Most Holy Place." Since Ezekiel was a priest he was able to enter the sanctuary with an angel but not ordinary people, but he was prohibited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as mentioned in Chapter 41:3. The Most Holy Place was where the Ark of Covenant was placed and only the High Priest was allowed to enter once a year with the blood offering of the animal sacrificed.

When we compare the measurement of the sanctuary and the Most Holy Place, the walls are thicker and corridors are narrower in the Most Holy Place than in the sanctuary. This shows that the Most Holy Place was where the presence of God was and consequently was distinguished as most holy from other places. In other words, God tried to deliver His clear meaning even through the detailed measurement of the temple.

1 Corinthians 3:16 tells us,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As a temple of God, how can we expose the will of God and deliver it? How distinguished is our life from the rest of the world as a holy temple of Go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November 목 Thu

제사장 방과 성전의 사면 담

The priest's room and four walls of the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2장



새419장(통478장) 주 날개 믿 내가 편안히 쉬네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오늘 본문은 새 성전의 본관 건물 좌우에 위치한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담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 42:10-20

10남쪽 골방 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11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12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 귀에 있더라

13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 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 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 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 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14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 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 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15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 량하는데

16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 니 오백 척이요

17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8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오백 척이요

19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오백 척이라

20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 당의 길이가 오백 척이며 너비가 오백 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describes the priest's rooms located on the left and right side of the new main temple building and the shape of the outer walls that surround the entire temple.

Ezekiel 42:10-20

- 10 In the thickness of the wall of the court, on the south also, opposite the yard and opposite the building, there were chambers
- ¹¹ with a passage in front of them. They were similar to the chambers on the north, of the same length and breadth, with the same exits and arrangements and doors,
- 12 as were the entrances of the chambers on the south. There was an entrance at the beginning of the passage, the passage before the corresponding wall on the east as one enters them.
- 13 Then he said to me, "The north chambers and the south chambers opposite the yard are the holy chambers, where the priests who approach the LORD shall eat the most holy offerings. There they shall put the most holy offerings--the grain offering, the sin offering, and the guilt offering--for the place is holy.
- 14 When the priests enter the Holy Place, they shall not go out of it into the outer court without laying there the garments in which they minister, for these are holy. They shall put on other garments before they go near to that which is for the people."
- 15 Now when he had finished measuring the interior of the temple area, he led me out by the gate that faced east, and measured the temple area all around.
- 16 He measured the east side with the measuring reed, 500 cubits by the measuring reed all around.
- ¹⁷ He measured the north side, 500 cubits by the measuring reed all around.
- 18 He measured the south side, 500 cubits by the measuring reed.
- 19 Then he turned to the west side and measured, 500 cubits by the measuring reed.
- **20** He measured it on the four sides. It had a wall around it, cubits long and cubits broad, to make a separation between the holy and the comm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제사장들의 방의 용도는 무엇입 니까? (13-14절) What were the priest's rooms used for? (42:13-14)

당신은 어떻게 신앙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How are you preserving the holiness of your faith?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생명교회, 신승호(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거룩하게 구별된 방

The consecrated room

천사가 안내한 구별된 방들은,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을 먹는 곳이며, 또 소제물과 속건제물을 두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두는 곳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쪽문을 통해 나가 보여준 담들 역시 세상의 속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방과 담은 모두 세속으로부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과 아이티 선교사로 있던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하나는, 집마다 담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도미니카공화국이나아이티는 가능한 높게 담을 쌓아서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창문이나 문들도 모두 쇠창살로 막아 버립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모두가 짐작하는 그대로입니다. 도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보안 카메라"나 "비디오 벨"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미국도 안전하지 않으니 카메라를 설치해서 도둑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점점 세속화 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구별하고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교회나 가정이 당신의 거룩한 삶을 위한 견고한 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separate rooms led by angels were places where the priests ate the most holy offerings and also holy places where the sin offerings and the guilt offerings were placed. They were also used as a place to store the clothes that the priests wore when they entered the sanctuary. As they went out through the east gate the walls were visible and were there to separate the holiness of God from the secular world. Therefore, all of the rooms and the walls were there as a means of protecting the holiness from the secular world.

When I returned to the US from my missionary tenure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Haiti, the most surprising thing I experienced was that there was no wall around any house. Some even told me that they did not bother locking their doors when they went out. On the other hand,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Haiti, walls are built as high as possible so that the inside could not be seen from the outside. In addition, all the doors and windows are enforced with heavy metal wires. You can guess why. There are too many burglars.

Nowadays in the US, the demand for "safety cameras" and "video doorbells" is increasing sharply. The US is no longer safe and camera installations are needed to protect against burglary. People will continue to deploy gadgets to protect their possessions. As the world becomes more secularized, how can we preserve holiness as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What kind of effort are you exercising to distinguish and to protect? I hope that your church or home will become a strong wall to protect your holy lif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4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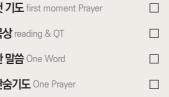
	_		
A	9	h.	
u	4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

グノ	ļΞ	IIISt	11101	пепі	Praye

묵상	reading	&	QT
----	---------	---	----

한 말씀 Or	ne Word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2

November 금 Fri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The Lord's Glory that Filled the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3장



새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던 에스겔서 10장의 사건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광이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과 다시 언약을 맺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에스겔 43:1-9

- 1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 2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 로 말미암아 빛나니
- 3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 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 4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 5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 6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 7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 워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 8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 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 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 니와
- 9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Reading insigh

Today's text describes the return of the Lord's glory that had departed from the temple in chapter 10. Upon the return of the Lord's glory in the temple, the Lord will renew the covenant with His people.

Ezekiel 43:1-9

- 1 Then he led me to the gate, the gate facing east.
- ² And behold, the glory of the God of Israel was coming from the east. And the sound of his coming was like the sound of many waters, and the earth shone with his glory.
- ³ And the vision I saw was just like the vision that I had seen when he came to destroy the city, and just like the vision that I had seen by the Chebar canal. And I fell on my face.
- ⁴ As the glory of the LORD entered the temple by the gate facing east,
- 5 the Spirit lifted me up and brought me into the inner court; and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 6 While the man was standing beside me, I heard one speaking to me out of the temple,
- ⁷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this is the place of my throne and the place of the soles of my feet, where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the people of Israel forever. And the house of Israel shall no more defile my holy name, neither they, nor their kings, by their whoring and by the dead bodies of their kings at their high places,
- 8 by setting their threshold by my threshold and their doorposts beside my doorposts, with only a wall between me and them. They have defiled my holy name by their abominations that they have committed, so I have consumed them in my anger.
- ⁹ Now let them put away their whoring and the dead bodies of their kings far from me, and I will dwell in their midst forever.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성전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 엇입니까? (7-9절) Why did the Lord leave the temple? (43:7-9)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세가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The three commands that the Lord gave to the people of Israel are also commands for us, too. How are you living out the commands in your life?

God Momen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

When There is Spiritual Renewal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던 성전이,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로 인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이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멀리 제거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문화를 즐기며 육체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왕처럼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11절).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번 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합니다(27절). 즉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The temple that was once bereft of the Lord's glory due to sins of Israel is now filled again with the Lord's glory. This is the fulfilment of the Lord's promise to the people of Israel who repented of their sins. In this time of renewal and restoration, the Lord commands three things to His people.

First, put away their prostitution and the funeral offerings for their kings. (43:9)

The corruption of Israel involved not only engaging in physical acts of prostitution but also spiritual corruption of betraying the Lord and worshipping other gods. Furthermore, they trusted the kings and others who had prestige and political power instead of trusting the Lord.

Second, be faithful to the design of the temple and follow all its regulations and laws. (43:11) The Lord commands them once again to obey and follow His Word. This is what the people who love the Lord should do.

Third, present burnt offerings and fellowship offerings on the altar. This command is the command to be faithful and diligent in their worship of the Lord. The restoration of Israel took place with the return of the Lord's glory. It's no different with our family, our church and our country. More important than the physical prosperity is having the Lord's glory in our live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November 토 Sat

레위 사람들 조차도 하나님을 버렸다

Even the Levites Strayed from the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4장



새339장(통365장) 재 주님 지신 십자가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4-46장에는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예배의 규범 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의 동쪽 문과 제사장에 관한 말 씀입니다. 앞부분에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를, 후반부에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유지하는 규례를 다룹니다.

에스겔 44:4-14

4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 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 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5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 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6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 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7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 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 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 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8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 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9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0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 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11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 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12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아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 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14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Reading insight

In Chapters 44–46,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Temple of the Lord is presented. Today's text deals with the temple gate that faces east and the priests.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riests are presented in the first half while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purity of the priests are stated in the second half

Ezekiel 44:4-14

- ⁴ Then he brought me by way of the north gate to the front of the temple, and I looked, and behol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emple of the LORD. And I fell on my face.
- ⁵ And the LORD said to me, "Son of man, mark well, see with your eyes, and hear with your ears all that I shall tell you concerning all the statute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all its laws. And mark well the entrance to the temple and all the exits from the sanctuary.
- ⁶ And say to the rebellious house, to the house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GOD: O house of Israel, enough of all your abominations.
- ⁷ in admitting foreigners, uncircumcised in heart and flesh, to be in my sanctuary, profaning my temple, when you offer to me my food, the fat and the blood. You have broken my covenant, in addition to all your abominations.
- ⁸ And you have not kept charge of my holy things, but you have set others to keep my charge for you in my sanctuary.
- ⁹ "Thus says the Lord GOD: No foreigner, uncircumcised in heart and flesh, of all the foreigners who are among the people of Israel, shall enter my sanctuary.
- 10 But the Levites who went far from me, going astray from me after their idols when Israel went astray, shall bear their punishment
- ¹¹ They shall be ministers in my sanctuary, having oversight at the gates of the temple and ministering in the temple. They shall slaughter the burnt offering and the sacrifice for the people, and they shall stand before the people, to minister to them.
- ¹² Because they ministered to them before their idols and became a stumbling block of iniquity to the house of Israel, therefore I have sworn concerning them, declares the Lord GOD, and they shall bear their punishment.
- 13 They shall not come near to me, to serve me as priest, nor come near any of my holy things and the things that are most holy, but they shall bear their shame and the abominations that they have committed.
- 14 Yet I will appoint them to keep charge of the temple, to do all its service and all that is to be done in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Why should the priests take off the clothes they have been ministering in when they go into the outer court where people are? (44:19)

예배가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 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 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can we do in order to experience worship not as a religious act but as worship in which we have a personal encounter with God?

God Moment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신령과 진정으로 In Truth and in Spirit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는 것이고,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성전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을 마음을다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자로서 지켜야 할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의 '그릇 행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집례해야 할 레위인들마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 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여전히 거룩했을지 모 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들은 그럭저럭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을 아 시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 에게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내일 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예배로 드려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The angel of the Lord brought Ezekiel to the front of the temple. There, Ezekiel saw the glory of the Lord filling the temple, and he fell facedown. The Lord then tells Ezekiel to "listen closely and give attention" to everything the Lord is about to tell him. Ezekiel was to give attention to the Word of the Lord and to the entrance to the temple and all the exits of the sanctuary. In other words, Ezekiel was to observe all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temple with his whole heart. Simply put, the Lord wanted Ezekiel to obey all the regulations as one who worships the Lord.

In our text today, the Lord points out the "detestable practices" of the Levites. The Lord points out that the Levites who are charged with taking care of the worship themselves did not observe the regulations. Perhaps, they may have maintained their appearance to be holy in the eyes of people and they may have carried out their minimal duties as Levites. And for that, people may have respected them. But the Lord who sees the heart declares that they will no longer be entrusted priestly duties.

The reason for this was that they did not serve the Lord with all of their heart. What is worship to us? Is it something that we would never exchange for anything else? Is it something to which we are fully committed? I pray that you will worship in truth and in spirit tomorrow.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4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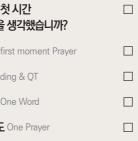
	_	
A	9	ħ.
Ų	_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섯기	ഥ	tırst	mom	ent	Praye

묵상 reading	&	QT
------------	---	----

한말씀(One Word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14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말씀과 성령으로 풍성한 가을을

박송수목사(워싱톤감리교회, MD)

'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글음을 밥새 울었다.'

위의 글은 문둥병(한센병)에 걸린 자의 설움을 표현한 서정주의 시 [문둥이]입니다. 사람들은 한센병이 전염된다고 여겨, '한센병자가 아이들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는 거짓 낭설을 퍼뜨리어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한센병자를 철저히 차단시킵니다. 이에 시인은 거짓된 낭설에 소망을 품고 행동하는 한센병자의 역설적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그의 아픔과 고통을 더욱 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린 자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눅 8:27)...,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 이 한 구절 속에는 가족, 친구, 이웃, 사회와의 철저한 단절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창 1: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창 2:18)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관계가 깨어져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어 죄된 본성 가운데 이기심과 상처로 가족과 이웃과의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내용이 바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영이 죽고, 소망이 죽고, 사랑이 죽고, 비전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러한 '무덤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들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절망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모습이 마른뼈가 가득 쌓인 무덤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고, 무덤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장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무덤)의 문을 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에스겔 선지자에게 2가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첫째는 '말씀'이며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겔 37:4), 둘째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이었습니다-("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겔 37:10-11)

November 월 Mon

거룩하게 사는 것

Sacred Living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5장



새211장(통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 거주할 땅 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구별될 구역 에 대해, 그리고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 그리고 정결 예식과 명절 에 대한 규정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1-9

1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 릴지니 그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2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오백 척이요 너 비가 오백 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3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 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그 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 한 곳이라

5또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 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6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오천 척을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 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7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 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 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 와 서로 같을지니라

8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 파대로 줄지니라

9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 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

What God desires from the people of Israel is that they live a holy life in the new land. Today's text deals with sections of the land that is to be set aside as a sacred district, the rules that the rulers must follow, purity rituals, and instructions for observing festivals.

Ezekiel 45:1-9

- 1 "When you allot the land as an inheritance, you shall set apart for the LORD a portion of the land as a holy district, 25,000 cubits long and 20,000 cubits broad. It shall be holy throughout its whole extent.
- ² Of this a square plot of 500 by 500 cubits shall be for the sanctuary, with fifty cubits for an open space around it.
- ³ And from this measured district you shall measure off a section 25,000 cubits long and 10,000 broad, in which shall be the sanctuary, the Most Holy Place.
- ⁴ It shall be the holy portion of the land. It shall be for the priests, who minister in the sanctuary and approach the LORD to minister to him, and it shall be a place for their houses and a holy place for the sanctuary.
- ⁵ Another section, 25,000 cubits long and 10,000 cubits broad, shall be for the Levites who minister at the temple, as their possession for cities to live in.
- 6 "Alongside the portion set apart as the holy district you shall assign for the property of the city an area 5,000 cubits broad and 25,000 cubits long. It shall belong to the whole house of Israel.
- 7"And to the prince shall belong the land on both sides of the holy district and the property of the city, alongside the holy district and the property of the city, on the west and on the east, corresponding in length to one of the tribal portions, and extending from the western to the eastern boundary
- 8 of the land. It is to be his property in Israel. And my princes shall no more oppress my people, but they shall let the house of Israel have the land according to their tribes.
- **9** "Thus says the Lord GOD: Enough, O princes of Israel! Put away violence and oppression, and execute justice and righteousness. Cease your evictions of my people, declares the Lord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통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은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most important virtue for rulers? (45:9)

여러분들이 일상 중에서 하나님 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실천 해 봄시다.

Think of one way that you can demonstrate God's holiness in your daily life and put it into practice.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Life that Demonstrates the Holiness of God

오늘 본문에서 유독 많이 볼 수 있는 단어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통치자들을 향해 "공평과 공의"를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 우리는 이를 사회적 성결(Social Holiness)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여름, 썸머 수업을 듣기 위해 대학교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 딸 Angela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ngela가 저녁을 먹기 위해 학교 밖으로 나갔는데, 어떤 홈리스 사람이 다가오더니 1불만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Angela의 지갑 속에는 Credit card만 있을 뿐,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하나도 없어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홈리스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사주면 어때?"라고 물었더니 너무나좋아하길래,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볶음밥을 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한 밥 값이 17불이었으니, 1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성결,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보면 어떨까요?

One recurring word in today's text is "holiness." Just as the holiness of God covers the land that God reigns, the life of ever believer must also demonstrate God's holiness. For this reason, in verse nine, the rulers are told to demonstrate God's holiness by doing what is just and right. We call such life that demonstrates God's holiness "social holiness."

Last summer, I received a phone call from my daughter who was taking summer courses in her college. She told me a story that made me feel good. One day, she went out to have dinner outside the school campus when a homeless person approached her and asked for a dollar. Unfortunately, she only had a credit card in her wallet and no cash. But she wanted to do something for the homeless person. So, she asked, "Can I buy you a meal?" The homeless person gladly accepted the offer and my daughter bought that person a bowl of fried rice.

Interestingly, even though the fried rice costed her \$17, which is much more than a dollar, she did not feel like she made a great sacrifice but only happiness. Social holiness is not that difficult demonstrate as some may think. Anyone can demonstrate it if there is a will. Can I challenge you to demonstrate God's holiness in whatever ways that you ca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 .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화 Tue

해야 하는 것과 할수 없는 것

Things to do and things that could not be don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6장



새216장(통356장) 성자의 귀한 몸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제사 규정을 소개하면서, 성소에 서의 왕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제 사장의 역할은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일 드리는 제사법과 왕의 기업에 관한 규례 및 부엌에 관한 규정 등 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6:12-18

12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 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 사제를 안식일에 드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가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3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 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4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육분의 일 에바와 기름 삼분의 일 힌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15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16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 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 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어니와

17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 받 을 것임이라

18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 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text deals with regulations surrounding offerings made on the Sabbath day and on the day of the New Moon and the role of the king in the inner court of the temple. But it is made clear that the role of the priest could not be taken over by anyone, including the king. Additionally, regulations surrounding the giving of daily regular offerings, giving an inheritance gift, and kitchen are introduced.

Ezekiel 46:12-18

- 12 When the prince provides a freewill offering, either a burnt offering or peace offerings as a freewill offering to the LORD, the gate facing east shall be opened for him. And he shall offer his burnt offering or his peace offerings as he does on the Sabbath day. Then he shall go out, and after he has gone out the gate shall be shut.
- 13 "You shall provide a lamb a year old without blemish for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daily; morning by morning you shall provide it.
- 14 And you shall provide a grain offering with it morning by morning, one sixth of an ephah, and one third of a hin of oil to moisten the flour, as a grain offering to the LORD. This is a perpetual statute.
- 15 Thus the lamb and the meal offering and the oil shall be provided, morning by morning, for a regular burnt offering.
- **16** "Thus says the Lord GOD: If the prince makes a gift to any of his sons as his inheritance, it shall belong to his sons. It is their property by inheritance.
- 17 But if he makes a gift out of his inheritance to one of his servants, it shall be his to the year of liberty. Then it shall revert to the prince; surely it is his inheritance—it shall belong to his sons.
- **18** The prince shall not take any of the inheritance of the people, thrusting them out of their property. He shall give his sons their inheritance out of his own property, so that none of my people shall be scattered from his property."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성전 출입 규정에 있어서 왕과 백 성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8-10절)

What difference is there between the prince and the people when it comes to regulations regarding the entrance to the temple? (46:8–10)

우리 교회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할 수있을까요?

Are there places in the church that are not perceived as being holy? If so, how can we restore the sense of holiness (sacredness) in that place?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부엌도 거룩하다 Even the Kitchen is Holy

새 성전에서의 예배 규범이 끝나는 46장의 마지막은 부엌규정으로 마무리됩니다. 흔히 부엌은 성소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서 소홀히 대할 수도 있는 곳이지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엌에서 속건 제물과 속죄 제물이 삶아지며, 곡식 제물이 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라고 하심으로서 이 부엌역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회의를 꼭교회 본당에서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큰 소리가 나고 싸움도 자주 일어나기에 회의실 같은 부속실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본당에서 회의를 하면 그나마 싸움이 줄어들까 봐 그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 예배를 드릴 때만 거룩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를 할 때에도, 주방에서 일을 할 때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그곳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After dealing with regulations surrounding the offerings made in the new temple, chapter 46 ends with regulations surrounding the kitchen. It is easy to assume that kitchen is not important when it comes to the act of making an offering since it is located far from the temple. But this is not a correct understanding because it is in the kitchen that guilt offering and sin offering are made and grain offering is baked.

For this reason, it is said at the end of our text today, "These are the kitchens where those who minister at the temple are to cook the sacrifices of the people" and the importance of keeping the kitchens holy is emphasized. I heard about a church where they hold church meetings only in the church sanctuary. When I asked for the reason, I was told that it is because, when they have meetings in regular meeting rooms, their meetings often develop into a brawl that they instituted this change in the hope of preventing people to engage in a brawl.

How about you and your church? Have you ever thought that worship is the only time that people need to be holy? We should not forget that God is in our midst also when we are in a meeting, working in the kitchen or eating together in the fellowship hall. Therefore, every place is a holy pla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숙기도 One Praver	Г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수 Wed

성전에서 나오는 물

The River from the Temple

통독본문 Reading Plan

에스겔 Ezekiel 47-48장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강이 되어 그 것이 미치는 곳들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땅의 분배와 경계, 타국인들의 허용에 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

에스겔 47:1-12

1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 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2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 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3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 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6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 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7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 로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9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 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 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Reading insigh

The water flowing from the temple in which the glory of God has been restored becomes a river, initiating the restoration of the places as it passes through. Distribution and boundaries of the restored land with the permission of foreigners are introduced.

Ezekiel 47:1-12

- ¹ Then he brought me back to the door of the temple, and behold, water was issuing from below the threshold of the temple toward the east (for the temple faced east). The water was flowing down from below the south end of the threshold of the temple, south of the altar.
- ² Then he brought me out by way of the north gate and led me around on the outside to the outer gate that faces toward the east; and behold, the water was trickling out on the south side.
- ³ Going on eastward with a measuring line in his hand, the man measured a thousand cubits, and then led me through the water, and it was ankle-deep.
- ⁴ Again he measured a thousand, and led me through the water, and it was knee-deep. Again he measured a thousand, and led me through the water, and it was waist-deep.
- ⁵ Again he measured a thousand, and it was a river that I could not pass through, for the water had risen. It was deep enough to swim in, a river that could not be passed through.
- 6 And he said to me, "Son of man, have you seen this?" Then he led me back to the bank of the river.
- ⁷ As I went back, I saw on the bank of the river very many trees on the one side and on the other.
- 8 And he said to me, "This water flows toward the eastern region and goes down into the Arabah, and enters the sea; when the water flows into the sea, the water will become fresh.
- **9** And wherever the river goes, every living creature that swarms will live, and there will be very many fish. For this water goes there, that the waters of the sea may become fresh; so everything will live where the river goes.
- 10 Fishermen will stand beside the sea. From Engedi to Eneglaim it will be a place for the spreading of nets. Its fish will be of very many kinds, like the fish of the Great Sea.
- 11 But its swamps and marshes will not become fresh; they are to be left for salt.
- 12 And on the banks, on both sides of the river, there will grow all kinds of trees for food. Their leaves will not wither, nor their fruit fail, but they will bear fresh fruit every month, because the water for them flows from the sanctuary. Their fruit will be for food, and their leaves for heal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성전이 회복되고(40-42장), 예 배가 회복되더니(43-46) 이제는 무엇이 회복됩니까? (47-48장) After the temple was restored (Chapters 40-42) and worship was restored (Chapter 43-46), what is now about to be restored? (Chapters 47-48)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가 나에 게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What can I do to make the stream of God's life flow from me to another place?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물이 바다 덮음 같이

As the waters cover the sea

부엌을 마지막으로 성전 둘러보기를 마친 에스겔은 동쪽을 향한 성전 건물의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전 밖으로 흘러나와 점점 넘쳐나더니 아무도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전 너머에 있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서곡에 불과합니다. 이 강물은 동쪽으로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사해)의 물을 되살릴 것이고, 단지 바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이르는 모든 곳과 그 속의 모든 생물을 살릴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는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뭔가 큰 성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작고 초라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이 가사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 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문지방의 물이 바다와 모든 생물을 살리 는 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멈추지 않을뿐더러 더 놀 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After going through the kitchen one last time, Ezekiel sees water coming out of the threshold of the temple building facing east. This water stream flows out of the temple and overflows, becoming a river deep enough no one can cross. But this is only a prelude to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beyond the temple. This river will go east, down to the Arabah, and revive the waters of the sea (Dead Sea). The river will revive not just the sea, but everywhere it goes and all living things in it.

When I first heard the song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 was experiencing the most difficult time as a missionary. For those who wanted me to achieve something big, all I could do was something small and humble. The lyrics I heard at that time were a big encouragement to me. "On that day, all the nations will see that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world! And we will be heard! What a shout of victory filled the whole world!"

Even if the work we are doing right now is very modest, we must not stop doing our best in that work. Just as the water at the threshold becomes the water that saves the sea and all living things, God's work will never stop and will create even more amazing thing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목 Thu

하나님의 임박하 심판

God's Imminent Judgment

통독본문 Reading Plan

아모스 Amos 1-2장



새445장(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 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메시지가 유다를 포함 하여 이스라엘과 이웃나라들을 향해 선포됩니다.

아모스 1:1-2, 2:1-8

- 1유다 왕 웃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 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이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 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 2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 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 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 1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 2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욧 궁궐들을 사르 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 3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 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 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 혹되었음이라
- 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 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 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 7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 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 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 8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Reading insight

Although Amos was from Judah, he was a prophet who carried out prophetic activities in northern Israel. In today's text, the message of judgment is proclaimed to Israel and its neighbors, including Judah.

Amos 1:1-2, 2:1-8

- ¹ The words of Amos, who was among the shepherds of Tekoa, which he saw concerning Israel in the days of Uzziah king of Judah and in the days of Jeroboam the son of Joash, king of Israel, two years before the earthquake.
- ² And he said: "The LORD roars from Zion and utters his voice from Jerusalem; the pastures of the shepherds mourn, and the top of Carmel withers."
- ¹ Thus says the LORD: "For three transgressions of Moab, and for four, I will not revoke the punishment, because he burned to lime the bones of the king of Edom.
- ² So I will send a fire upon Moab, and it shall devour the strongholds of Kerioth, and Moab shall die amid uproar, amid shouting and the sound of the trumpet;
- ³ I will cut off the ruler from its midst, and will kill all its princes with him," says the LORD.
- ⁴ Thus says the LORD: "For three transgressions of Judah, and for four, I will not revoke the punishment, because they have rejected the law of the LORD, and have not kept his statutes, but their lies have led them astray, those after which their fathers walked.
- ⁵ So I will send a fire upon Judah, and it shall devour the strongholds of Jerusalem."
- ⁶ Thus says the LORD: "For three transgressions of Israel, and for four, I will not revoke the punishment, because they sell the righteous for silver, and the needy for a pair of sandals--
- 7 those who trample the head of the poor into the dust of the earth and turn aside the way of the afflicted; a man and his father go in to the same girl, so that my holy name is profaned;
- ⁸ they lay themselves down beside every altar on garments taken in pledge, and in the house of their God they drink the wine of those who have been fin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서 너 가지의 죄는 무엇입니까? (2장 4절)

What were the three or four sins that caused Judah to be punished by God? (2:4)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If there is an aspect of you that is not in accord with God's heart, what is it?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착각하지 맙시다 Let's not be mistaken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남 유다의 왕은 웃시야(791-739)였는데 그는 남유다를 52년간이나 통치하면서 블레셋의 '아스돗'과 에돔의 '구르바알'까지 점령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793-753)였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면서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남쪽으로는 염해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즉,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셨기에 나라가 강하고 부하게 되었다고 여겼으며, 앞으로도 여호와의 날이 오면 더욱 큰 승리를 가져다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사회적/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으며, 그저 불의와 우상숭배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모스는 그들이 철저히 착각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닌 재앙의 날이 될 것 임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이때,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때 에, 혹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로서 살고 있 지는 않은 가요? 이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짖으시고. 소리를 내리십니다.

When Amos received a revelation from God, the king of Judah was Uzziah (791–739), who ruled for 52 years and seized Ashdod of the Philistines and Gurbaal of Edom. The king of northern Israel at this time was Jeroboam II (793–753), who ruled for 41 years, extending his territory to the north to the mouth of Hamath and to the south to the Salt Sea, occupying the largest territory since Solomon.

In other words, when Amos was active, Judah in the south and Israel in the north were both enjoying their splendid heyday. All the Israelites thought that the nation had become strong and rich because God had blessed them, and they thought that the day of the Lord would bring even greater victories in the future. But in reality, both Israel in the north and Judah in the south were socially and religiously corrupt. There was no justice, no righteousness, and only injustice and idolatry prevailed in that land. In response, Amos declared that they were completely mistaken and warned that if they did not turn around in obedience to God's Word, the day of the Lord would not be a day of victory, but a day of disaster.

How is your life now? Maybe you're living a lie? At this time when you are enjoying material wealth more than ever, at a time when you can live your life of faith freely and comfortably, are you living as hypocrites before God without even realizing it? Even toward the land where you live, God calls out and sends out His voic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ᅯᆌᄃᇎᆞ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November 금 Fri

하나님 앞에 범한 세 가지 죄악

Three sins committed before God

통독본문 Reading Plan

아모스 Amos 3-4장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4장은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심판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4:1-9, 12-13

1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 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 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 라 하는도다

2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 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 가 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3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너희는 벧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5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 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 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 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8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 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기 재앙으로 너 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 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 기를 준비하라

13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 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s 3 and 4 specifically list the crimes committed by Israel, and there are God's words of reproof and warning toward them. If they do not return to seeking after God's heart, they will eventually be judged and perish.

Amos 4:1-9, 12-13

- ¹ "Hear this word, you cows of Bashan, who are on the mountain of Samaria, who oppress the poor, who crush the needy, who say to your husbands, 'Bring, that we may drink!'
- ² The Lord GOD has sworn by his holiness that, behold, the days are coming upon you, when they shall take you away with hooks, even the last of you with fishhooks.
- ³ And you shall go out through the breaches, each one straight ahead; and you shall be cast out into Harmon," declares the LORD.
- 4 "Come to Bethel, and transgress; to Gilgal, and multiply transgression;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your tithes every three days;
- ⁵ offer a sacrifice of thanksgiving of that which is leavened, and proclaim freewill offerings, publish them; for so you love to do, O peopl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GOD.
- 6 "I gave you cleanness of teeth in all your cities, and lack of bread in all your places, yet you did not return to me," declares the LORD.
- 7 "I also withheld the rain from you when there were yet three months to the harvest; I would send rain on one city, and send no rain on another city; one field would have rain, and the field on which it did not rain would wither;
- 8 so two or three cities would wander to another city to drink water, and would not be satisfied; yet you did not return to me," declares the LORD.
- 9 "I struck you with blight and mildew; your many gardens and your vineyards, your fig trees and your olive trees the locust devoured; yet you did not return to me," declares the LORD.
- 12 "Therefore thus I will do to you, O Israel; because I will do this to you, prepare to meet your God, O Israel!"
- 13 For behold, he who forms the mountains and creates the wind, and declares to man what is his thought, who makes the morning darkness, and treads on the heights of the earth-- the LORD, the God of hosts, is his na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계속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2-13절) How does God respond when the Israelites continue to commit sins? (4:12-13)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혹은 '의식하지 못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What are your "invisible" or "unconscious" sins?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분명한 죄악입니다

It's clearly a sin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악들 중에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락에 빠진 여인들입니다(1-3). 바산의 암소로 표현된 이 여인들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으며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품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사욕으로 인해 결국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4-5). 그들은 여전히 베델과 길갈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6-11).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는, 이미 그들이 저지른 죄악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 니다. 본문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지적된 이 세 가지 죄악에 대해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죄악인가?'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죄악이라 하십니다.

In today's text, three of the sins that the Israelites committed before God are specifically introduced. The first sin is about women living in pleasure (4:1–3). These women, represented by the cows of Bashan, abuse the poor, trample the needy, and indulge in pleasure. God wants to take away the material possessions He has given them and share it with their neighbors so that God's justice can be accomplished. However, because of these women's greed, the poor and needy are eventually sacrificed.

The second is formal worship (4:4–5). They still worshiped together in Bethel and Gilgal. However, the heart of gratitude to God and their obedience to the Word were missing from that worship service. Third, they did not repent (4:6–11). The chronic problem of the Israelites is that they do not turn back on the sinful actions or thoughts they have already committed. The text repeats the phrase "yet you have not returned to me" five times, pointing out that they did not repent.

One may wonder about these three sins pointed out today. Because they are things that are not clearly visible on the outside, you may ask, "Is this such a great sin?" But God sees the invisible. And God clearly calls it a si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4	
u		

	_		
A	9	h.	
u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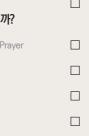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ነ?
첫 기도 first moment Pr	a)

젓기	노	first	mom	ent	Prayer



한 말씀 One Word	С
---------------	---

단숨기도	One	Praye
------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0

November 토 Sat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통독본문 Reading Plan

아모스 Amos 5장



새459장(통514장) 누가 주를 따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장은 멸망할 이스라엘을 향한 애가로 시작합니다. 슬픈 노래가 의미하는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그 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5:16-27

16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 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 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17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8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 요 빛이 아니라

19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21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 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 아보지 아니하리라

23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 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ㅎㄹ게 학지어다

25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26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유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 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7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 서 말씀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

Chapter 5 begins with a lament for Israel that will be destroyed. As the sad song implies, the current situation in Israel is very hopeless. If they do not repent, they will eventually be judged and perish.

Amos 5:16-27

16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hosts, the Lord: "In all the squares there shall be wailing, and in all the streets they shall say, 'Alas! Alas!' They shall call the farmers to mourning and to wailing those who are skilled in lamentation,

17 and in all vineyards there shall be wailing, for I will pass through your midst," says the LORD.

18 Woe to you who desire the day of the LORD! Why would you have the day of the LORD? It is darkness, and not light,

19 as if a man fled from a lion, and a bear met him, or went into the house and leaned his hand against the wall, and a serpent bit him.

20 Is not the day of the LORD darkness, and not light, and gloom with no brightness in it?

21 "I hate, I despise your feasts, and I take no delight in your solemn assemblies.

22 Even though you offer me your burnt offerings and grain offerings, I will not accept them; and the peace offerings of your fattened animals, I will not look upon them.

23 Take away from me the noise of your songs; to the melody of your harps I will not listen.

24 But let justice roll down like waters, and righteousness like an ever-flowing stream.

25 "Did you bring to me sacrifices and offerings during the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O house of Israel?

26 You shall take up Sikkuth your king, and Kiyyun your star-god--your images that you made for yourselves,

27 and I will send you into exile beyond Damascus," says the LORD, whose name is the God of host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된 모습들 은 무엇입니까? (11-13절) What were the sins of Israel? (5:11-13)

교회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는 그 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신 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Even though you are a faithful Christian at church, is there anything that you fall short of in your home or community? What is the reason?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GA)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What God requires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는 18절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여호와의 날은 곧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재앙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 사항은 무엇일까요?(21-24)

그 내용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자 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 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은 모두 그 말씀을 알면서도, 그저 말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들 이 모두 공허할 뿐입니다.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2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의 삶 속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위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자기희생 없는 말뿐인 종교행위를 멈추고, 자신의 부와 안전을 위한 세상적인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Verse 18, which begins "Woe to you," shows that if the present state of Israel continues, the Day of the Lord will soon become a day of calamity. The only way to avoid that disaster is turning back to God. Then, what is God's will and God's requirements? (5:21–24)

Looking at the contents, we can see that God does not want ritualistic worship. He looks at the heart of the worshiper, and He wants us to truly love God and serve our neighbors. But this is nothing new. This is the Word that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all the prophets since long ago. All the Israelites knew the Word, but to them it was just words. In their lives, the Word didn't have any power. "Away with the noise of your songs! I will not listen to the music of your harps" (5:23).

What God wants is for justice to flow like water in real life and righteousness like a river that never runs dry. That is, to serve the poor not to take away from them, to stop religious practices without self-sacrifice, and to lay down worldly idols for one's own wealth and security. Then you make a choice to live a life of walking with Jesus. This is the Christian life that God requir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0
- 2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21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주간의 일정 This Week

언제쯤 철이 들까요?

홍성국목사(프렛빌 한인교회/AL)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터로 가고 있는데, 웬 벌레 한 마리가 앞발을 도끼처럼 휘두르며 수레에 덤벼드는 겁니다. 마부에게 벌레에 대해 묻자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것은 사마귀라는 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설 줄을 모르는데, 제힘은 생각하지도 않고 적을 가볍게 보는 버릇이 있습니다."이렇게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고 선 것처럼 제 분수도 모르고 무모하게 나서는 것을 "당랑거철"이라부릅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성숙해지는 과정 같습니다.

나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티끌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삶의 전부인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성숙입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 철부지 사마귀처럼 '당랑거철' 하려는 미 성숙의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 봅니다. 티끌과 같은 나 자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막으려고 하고, 되돌리려고 하고, 내 중심에서 바라보려고 하고, 내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께 따라오라고 설득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반성해 보는 겁니다.

이제 오십대를 향해 가면서(벌써 이 말이 익숙해지려는 게 조금은 서글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이 후반전에 들어와 있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성취와 결과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전히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내가 원하는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협조해 주셔야 한다고 믿는 미성숙이 내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매몰되어서 그것들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들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깨닫고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라고 제 귀에 쟁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언제쯤 철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이 미성숙에서 성숙의 과정으로 빚으시고 만지시고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왕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매주 계속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는 알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연약한 인간이 살아가는 지혜의 삶임을 배웁니다.

22

November 월 Mon

이스라엘의 멸망

Destruction of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아모스 Amos 6장



새481장(통53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소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8-14절은 하나님의 일인칭 시점으 로 자신의 심판이 얼마나 처절한지가 선포되며 다시금 심판의 이 유를 말씀합니다.

아모스 6:1-6, 10-14

1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 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2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3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 지게 하고

4상아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 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 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6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 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10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 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 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12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 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 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13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 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14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 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 리라 하셨느니라

Reading insight

Amos introduces the justification of God's judgment on the sins of the Israelites. Specifically, verses 1–6 explain why God has no choice but to judge the people of Israel. Verses 8–14 include God's own words, proclaim how serious His judgment is, and again explain the reason for judgment.

Amos 6:1-6, 10-14

- 1 "Woe to those who are at ease in Zion, and to those who feel secure on the mountain of Samaria, the notable men of the first of the nations, to whom the house of Israel comes!
- ² Pass over to Calneh, and see, and from there go to Hamath the great; then go down to Gath of the Philistines. Are you better than these kingdoms? Or is their territory greater than your territory,
- ³ O you who put far away the day of disaster and bring near the seat of violence?
- 4 "Woe to those who lie on beds of ivory and stretch themselves out on their couches, and eat lambs from the flock and calves from the midst of the stall.
- ⁵ who sing idle songs to the sound of the harp and like David invent for themselves instruments of music.
- 6 who drink wine in bowls and anoint themselves with the finest oils, but are not grieved over the ruin of Joseph!
- 10 And when one's relative, the one who anoints him for burial, shall take him up to bring the bones out of the house, and shall say to him who is in the innermost parts of the house, "Is there still anyone with you?" he shall say, "No"; and he shall say, "Silence! We must not mention the name of the LORD."
- ¹¹ For behold, the LORD commands, and the great house shall be struck down into fragments, and the little house into bits.
- 12 Do horses run on rocks? Does one plow there with oxen? But you have turned justice into poison and the fruit of righteousness into wormwood--
- 13 you who rejoice in Lo-debar, who say, "Have we not by our own strength captured Karnaim for ourselves?"
- 14 "For behold, I will raise up against you a nation, O hous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the God of hosts; "and they shall oppress you from Lebo-hamath to the Brook of the Araba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타락한 사회지도층의 사람들을 선지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 니까? (4-6절)

How does the prophet describe the people of the corrupt social leadership? (6:4-6)

나보다 어려운 누군가에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What can I do for someone less fortunate than m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풍요속의 빈곤

Poverty amid abundance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 '풍요의 시대'를 누렸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18세기의 영국은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공정을 통해 농장이나 공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업화로 인해 도시로모여든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부족해 일을 해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시간이 갈수록 도시의 공기는 나빠지고,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은 비위생적이었기에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영국 역시 풍요로움 가운데 있었으나, 그 풍요는 모두에게 해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풍요를 위해 희생과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노동자와 가난한계층의 사람들을 찾아가 설교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으며, 감리교인들에게 "사회적 성결"을 강조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풍요로움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그 풍요로움으로 인해 오히려 그 이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볼 수 없다면, 그 자리 역시 애가를 부르며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루에 5잔의 차를 마실 정도로 차 마시기를 즐겼던 웨슬리 목사님이, 언젠가부터 차 대신에 뜨거운 물을 마셨답니다. 그 이유는 한 달 동안 그렇게 아낀 5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이 지금의 우리 모든 감리교인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period of Prophet Amos' ministry was the heyday when both Judah and Northern Israel enjoyed the "age of abundance." But not everyone was affluent. Britain in the 18th century underwent important economic and social changes with the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new manufacturing processes, the scale of farms and factories had grown, resulting in rapid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as a result of this industrialization, the number of people who flocked to the city increased, but due to the lack of jobs they were not able to receive proper wages. As time went on, the air quality in the city deteriorated, and the places where the workers lived were unsanitary, so many people became ill.

England at that time was also in the midst of abundance, but that abundance was not for everyone. Rather, more people were being sacrificed and exploited for someone else's prosperity. During this time, Pastor John Wesley visited the working class and the poor to help them experience God's grace through sermons and prayers. He taught Methodists to live as believers, emphasizing "social holiness."

There is nothing wrong with affluence, but if it makes you unable to see the poor and marginalized behind it, you should mourn and lament. Pastor Wesley, who enjoyed drinking tea enough to drink 5 cups of tea a day, started drinking hot water instead. The reason is that he was going to give the poor people the £5 he had saved during the month. I hope that Pastor Wesley's heart will become the heart of all Methodists toda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	
4	С	

4		
a	2	h
ч	_	,

눈 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



23

November 화 Tue

재앙에 관한 세 가지 화상

Three Visions of Disaster

통독본문 Reading Plan

아모스 Amos 7장



새337장(통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9절은 하 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세 가지 환상에 관한 내용이고, 10-17절은 아모스의 사역을 방해하는 벧엘의 선지자 아마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7:1-9

1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돈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 뚜기를 지으시매

2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 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 게 서리이까 하매

3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느니라

4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5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 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8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 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9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 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

Today's text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Verses 1–9 are the three visions God showed Amos, and verses 10–17 are the story of Amaziah, the prophet of Bethel, who interfered with Amos' work.

Amos 7:1-9

- ¹ This is what the Lord GOD showed me: behold, he was forming locusts when the latter growth was just beginning to sprout, and behold, it was the latter growth after the king's mowings.
- ²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the grass of the land, I said, "O Lord GOD, please forgive! How can Jacob stand? He is so small!"
- ³ The LORD relented concerning this: "It shall not be," said the LORD.
- ⁴ This is what the Lord GOD showed me: behold, the Lord GOD was calling for a judgment by fire, and it devoured the great deep and was eating up the land.
- 5 Then I said, "O Lord GOD, please cease! How can Jacob stand? He is so small!"
- ⁶ The LORD relented concerning this: "This also shall not be," said the Lord GOD.
- ⁷ This is what he showed me: behold, the Lord was standing beside a wall built with a plumb line, with a plumb line in his hand.
- 8 And the LORD said to me, "Amos, what do you see?" And I said, "A plumb line." Then the Lord said, "Behold, I am setting a plumb line in the midst of my people Israel; I will never again pass by them;
- 9 the high places of Isaac shall be made desolate, and the sanctuaries of Isaacl shall be laid waste, and I will rise against the house of Jeroboam with the sw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재앙 의 환상은 무엇입니까? (1-9절) What was the vision of the three plagues that God showed Amos? (7:1-9)

나라를 위해,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What will you pray for your country, for The United Methodist Church, for your church, and for your family?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응(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The Prayer of intercession is needed

오늘 처음에 등장한 메뚜기와 불의 재앙은 구조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시면, 아모스가 그 환상을 보고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이 두 환상이 의미하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아모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인데, 앞의 환상의 구조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곧바로 아모스에게 질문을 하시고, 이 질문에 아모스가 대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례 없던 풍요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올곧은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그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즉각적인 심판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는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림줄로 기준을 재듯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립과 분열, 불신앙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앞으로 되돌이킬 만한 삶의 영역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The locusts and the plagues of fire, which first appear in today's passage, are structurally identical. That is, God first shows a vision to Amos, and Amos sees the vision and offers intercession. Then God changes His will and withholds judgment. These two visions repeat the same message. In other words, the people of Israel who do not live according to God's will have no choice but to be judged at God's appointed time, but God withholds that judgment through Amos' intercession.

The third vision is the illusion of a plumb line, which is slightly different from the structure of the previous ones. Here, God begins by showing Amos a vision, but God immediately asks a question of Amos, and when Amos answers this question, God explains the vision. Israel experienced unprecedented abundance. At this time, Israel should have lived an upright life, more obedient to God's Word, thanking God for His grace. Instead, they were farther away from the God who allowed all these things. Nevertheless, God gave them time to repent instead of immediate judgment. This was because of Amos' earnest prayer. But as time passed, they did not repent. In the end, God will judge them by His standards, just as He measures them with a plumb line.

Dear member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please pray for our United Methodist Church and for this country that is declining due to conflict, division, and unbelief even at this moment. I also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examine ourselves to see whether there are areas in our lives that require repentance before the Lord.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4

November 수 Wed

이스라엘의 회복

The restoration of Israel

통독본문 Reading Plan

아모스 Amos 8-9장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장에 기록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의 환상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웠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아모스 9:7-15

7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 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 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8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체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 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0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 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 으리라

11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 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 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 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워 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Reading insight

The vision of a basket of ripe fruit recorded in Chapter 8 means that the destruction of Israel is close at hand. Chapter 9 emphasizes that God's judgment will be sure and thorough. However, the end of this prophecy is a hopeful message of Israel's restoration.

Amos 9:7-15

- ⁷ "Are you not like the Cushites to me, O people of Israel?" declares the LORD. "Did I not bring up Israel from the land of Egypt, and the Philistines from Caphtor and the Syrians from Kir?
- ⁸ Behold, the eyes of the Lord GOD are upon the sinful kingdom, and I will destroy it from the surface of the ground, except that I will not utterly destroy the house of Jacob," declares the LORD.
- 9 "For behold, I will command, and shake the house of Israel among all the nations as one shakes with a sieve, but no pebble shall fall to the earth.
- ¹⁰ All the sinners of my people shall die by the sword, who say, 'Disaster shall not overtake or meet us.'
- 11 "In that day I will raise up the booth of David that is fallen and repair its breaches, and raise up its ruins and rebuild it as in the days of old,
- 12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nations who are called by my name," declares the LORD who does this.
- 13 "Behold, the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the plowman shall overtake the reaper and the treader of grapes him who sows the seed; the mountains shall drip sweet wine, and all the hills shall flow with it.
- 14 I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my people Israel, and they shall rebuild the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and they shall make gardens and eat their fruit.
- 15 I will plant them on their land, and they shall never again be uprooted out of the land that I have given them," says the LORD your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9장 11-12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인용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행 15:12-21절) The words of 9:11-12 are quoted from the book of Acts. What are the verses? (Acts 15:12-21)

당신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 했던 경험이 있으신 가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노래하게 만들었 습니까?

Have you ever sang of hope for the world? What made you sing like that?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다시 일어나 희망을 노래하자

Let's rise again and sing of hope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아픈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재해로 인한 소식으로부터 직장을 잃은 사람들,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는 이야기까지 -. 교회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부정과 불신이 끊이지 않아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우리 UMC도 젠더 이슈(Gender Issue, 사회적인 성 문제)로 인해 갈등과 분열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노래처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신 그 부활의 노래처럼, 지금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 11:1)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을 이미 실현된 현실처럼 생각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보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은 이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는 사람, 그리고 서 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면 되는 겁니다.

In this world we live in, even at this moment, heartbreaking news is constantly pouring in: news of war, famine, and disasters; those who lost their jobs: those who took their own lives over the hardships of life; and stories of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The church is no different. There are also stories of quarrels and divisions among parishioners. As a result, society is more concerned about the church due to its corruption and uncertainty. Our UMC is also facing a crisis of conflict and division due to gender issues. Can we sing of hope in this reality?

Like the song of restoration for the Israelites and like the song of resurrection in which God raised Jesus Christ, who was crucified, to life again, can we sing of hope even now? Apostle Paul said, "Faith shows the reality of what we hope for; It is the evidence of things we cannot see" (Heb. 11:1). This means that your life of faith is to expect things that have not yet been realized as if they have already been accomplished and to live as if seeing things that are not yet materialized.

But this does not depend on our strength. It is only possible through God's grace and love. Therefore, our only hope is this love of God. Then how can we experience the love of God? The path was shown and taught by Jesus. So, walking down that road, we just need to live as people who sing of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as people who see light in the dark, and as people who love each other passionately.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November 목 Thu

에돔의 교만

Edom's Pride

통독본문 Reading Plan

오바댜 Obadiah 1장



새217장(통36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히브리어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바댜는 유다의 원수인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또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바댜 1:1-7. 11-14

1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 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2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 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3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 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 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4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혹시 도둑이 네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 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 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6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7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에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 각이 없음이로다

11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 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2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 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13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 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 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4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 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Reading insight

Obadiah, meaning "servant of the Lord" in Hebrew, contains a message of judgment against Edom, the enemy of Judah, but also proclaims God's promise of salvation to the people.

Obadiah 1:1-7, 11-14

- ¹ The vision of Obadiah. Thus says the Lord GOD concerning Edom: We have heard a report from the LORD, and a messenger has been sent among the nations: "Rise up! Let us rise against her for battle!"
- ² Behold, I will make you small among the nations; you shall be utterly despised.
- 3 The pride of your heart has deceived you, you who live in the clefts of the rock, in your lofty dwelling, who say in your heart, "Who will bring me down to the ground?"
- ⁴Though you soar aloft like the eagle, though your nest is set among the stars, from there I will bring you down, declares the LORD.
- ⁵ If thieves came to you, if plunderers came by night-how you have been destroyed!-- would they not steal only enough for themselves? If grape gatherers came to you, would they not leave gleanings?
- 6 How Esau has been pillaged, his treasures sought out!
- ⁷ All your allies have driven you to your border; those at peace with you have deceived you; they have prevailed against you; those who eat your bread have set a trap beneath you--you have no understanding.
- 11 On the day that you stood aloof, on the day that strangers carried off his wealth and foreigners entered his gates and cast lots for Jerusalem, you were like one of them.
- 12 But do not gloat over the day of your brother in the day of his misfortune; do not rejoice over the people of Judah in the day of their ruin; do not boast in the day of distress.
- ¹³ Do not enter the gate of my people in the day of their calamity; do not gloat over his disaster in the day of his calamity; do not loot his wealth in the day of his calamity.
- ¹⁴ Do not stand at the crossroads to cut off his fugitives; do not hand over his survivors in the day of distres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구체적인 에돔의 죄악은 무엇입 니까? (12-14절) What were the specific sins of Edom? (12-14)

당신이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 회복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If you have someone to reconcile with, what can you do?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최현규(HI)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H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지금 화해하고 회복하십시오

Now is the time for reconciliation and recovery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에돔의 수도는 '셀라'였는데 이곳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군사적인 침략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남쪽으로는 애굽과 아라비아,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와 수리아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고, 또한 철광석과 구리 같은 자원마저 풍부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돔 사람들은 스스로를 다른 나라에 의해 정복되지 않는 나라로,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교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교만한 모습을 향해 하나님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라고 말씀하 시면서 부와 권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관계에 있습니다. 각각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입 니다. 하지만 장자권과 관련한 불편했던 관계가 그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 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은 자신의 영토 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 당할 때에도 도와주기는커녕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에돔이 다시 화해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서로 힘들 때 도와주는 형제의 관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 다. 단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사람은 없습 니까? 아내나 남편, 자녀와의 관계 혹은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 간에도 말입니다. 나중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때입니다.

God speaks of Edom's pride. At that time, the capital of Edom was Selah, which was difficult to access due to its steep slope that provided protection from military aggression. Moreover, it was a transportation hub connecting Egypt and Arabia to the south and Mesopotamia and Syria to the north, and it was also rich in resources such as iron ore and copper. Therefore, the Edomites came to think of themselves as a nation that could not be conquered by other nations, and that they were the most outstanding nation in the world. This kind of thinking led to pride, not even acknowledging the power of God.

Eventually, toward this arrogance God said, "I will bring you down from there," and their wealth and power will be stripped away completely. In fact, Edom had a brotherly relationship with Israel. They are descendants of Jacob and Esau, respectively, the sons of Isaac. However, the uncomfortable relationship related to the birthright continued to their descendants. When Israel left Egypt and went to Canaan, Edom did not allow it to pass through its territory, and when Judah was destroyed by Babylon, instead of helping, the Edomites rejoiced in the destruction of Judah.

God probably wanted Israel and Edom to be reconciled again. It could be a relationship of brothers who help each other in times of need. There were always opportunities like that. But they just didn't take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Is there anyone who is uncomfortable with you? Is it a wife, husband, children, or a pastor or a member of the church? Don't do it later. Now is the God–given tim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6

November 금 Fri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Jonah flees to Tarshis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나 Iona 1장



새458장(통513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락은 하나님의 부 르심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며(1-3), 둘째 단락은 요나의 불순종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 가를 보여 줍니다(4-16).

요나 1:1-10

1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 라 이르시되

2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3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 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 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 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 유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 5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 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 6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 7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 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 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 8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 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 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 9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 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 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1 can be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The first section shows Jonah running away in disobedience from God's call (1:1–3), and the second section shows how God responds to Jonah's disobedience. (1:4–16)

Jonah 1:1-10

- ¹ Now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on of Amittai, saying,
- **2**"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call out against it, for their evil has come up before me."
- ³ But Jonah rose to flee to Tarshish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He went down to Joppa and found a ship going to Tarshish. So he paid the fare and went on board, to go with them to Tarshish, away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 ⁴ But the LORD hurled a great wind upon the sea, and there was a mighty tempest on the sea, so that the ship threatened to break up.
- 5 Then the mariners were afraid, and each cried out to his god. And they hurled the cargo that was in the ship into the sea to lighten it for them. But Jonah had gone down into the inner part of the ship and had lain down and was fast asleep.
- 6 So the captain came and said to him, "What do you mean, you sleeper? Arise, call out to your god! Perhaps the god will give a thought to us, that we may not perish."
- 7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Come, let us cast lots, that we may know on whose account this evil has come upon us." So they cast lots, and the lot fell on Jonah.
- 8 Then they said to him, "Tell us on whose account this evil has come upon us. What is your occupation? And where do you come from? What is your country? And of what people are you?"
- 9 And he said to them, "I am a Hebrew, and I fear the LORD, the God of heaven, who made the sea and the dry land."
- 10 Then the men were exceedingly afraid and said to him, "What is this that you have done!" For the men knew that he was fleeing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because he had told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들었 던 비난은 무엇입니까? (6, 10절) What were the accusations Jonah heard when he ran away from God? (1:6, 10)

당신도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 이 유는 무엇입니까?

Have you ever wanted to go to Tarshish instead of Nineveh? Why?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H)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왜 도망갔을까? Why did he run away?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가 많아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는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던 걸까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앗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 나라가 적국이고, 악과 음란이 가득한 철천지원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 동안만 숨어 있으면 그냥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나는 그 곳을 가기도 싫었을 뿐 아니라,혹시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그들이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건만, 결국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가고자(하고자)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하는 모습은 오래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선택했던 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One day, God called the prophet Jonah and asked him to tell the people of Nineveh the will of God. They had committed many sins, so God would judge them. God told Jonah to go to Nineveh and declare, "Forty days from now Nineveh will be destroyed!" But Jonah refused to go to Nineveh and tried to escape in a ship going to Tarshish. Why did Jonah hate going to Nineveh?

Nineveh was the capital of Assyria that destroyed northern Israel. From Jonah's point of view, that country is an enemy, a country full of evil and lewdness. Therefore, he thought that if he hid only for the 40 days appointed by God, the country would be destroyed. Not only did Jonah not want to go there, he wondered if they would hear his message, but if they repented, God might not destroy them. So, he got on the ship going to Tarshish, but eventually encountered a storm, was thrown into the sea, and spent time repenting in the belly of the big fish that God had prepared.

Even though we say we believe in God,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want to do what we want rather than accomplish God's purpose. The way I make decisions as I see and think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a foolish human who chose what was pleasing to the eye and good to be eaten in Genesis. Putting down my thoughts is the beginning of faith.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er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7

November 토 Sat

요나의 기도

Jonah's Prayer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나 Iona 2장



새90장(통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 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뱃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 2:1-10

-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 도하여
- 2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 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 이다
- 3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 에 넘쳤나이다
- 4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 5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 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 6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 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 7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 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 에 미쳤나이다
- 8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 9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워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이다 하니라
-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 지에 토하니라

Reading insight

When Jonah, who disobeyed God, was thrown into the sea, God prepared a large fish to swallow Jonah. Jonah prays to God in the belly of the fish.

Jonah 2:1-10

- ¹ Then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from the belly of the fish.
- ² saying, "I called out to the LORD, out of my distress, and he answered me; out of the belly of Sheol I cried, and you heard my voice.
- ³ For you cast me into the deep, into the heart of the seas, and the flood surrounded me; all your waves and your billows passed over me.
- ⁴ Then I said, 'I am driven away from your sight; yet I shall again look upon your holy temple.'
- ⁵ The waters closed in over me to take my life; the deep surrounded me; weeds were wrapped about my head
- 6 at the roots of the mountains. I went down to the land whose bars closed upon me forever; yet you brought up my life from the pit, O LORD my God.
- ⁷ When my life was fainting away, I remembered the LORD, and my prayer came to you, into your holy temple.
- ⁸ Those who pay regard to vain idols forsake their hope of steadfast love.
- ⁹ But I with the voice of thanksgiving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pay. Salvation belongs to the LORD!"
- ¹⁰ And the LORD spoke to the fish, and it vomited Jonah out upon the dry lan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나의 기도중에 하나님이 기뻐 하실 만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4, 7절)

During Jonah's prayer, what confession would God be pleased with? (2:4, 7)

지금 우리가 벗어나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회개 해야 할까요?

What hardships do we need relief from now? What should we repent of?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TB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진정한 회개가 없을 때

When there is no true repentance

요나서에는 다른 선지서와는 다른 독특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은 또다시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의 기도 역시 특이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요나는 분명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이런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기회의 시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분이심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기쁨을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시어 요나를 다시 물 밖으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 여전히 선지자의 마음속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을 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했지만,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에 대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 새벽에 나와 기도하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그 들의 속사람은 달라졌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나.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The book of Jonah has a uniqueness that sets it apart from other prophets. That is God called a prophet to forgive the sins of the Gentiles, not Israel, and the prophet who received God's call rebelled against God and fled. Moreover, God is persuading that same prophet again. The prayer of thanksgiving that appears in today's text is also unique.

Being trapped in the belly of a fish, Jonah is clearly in trouble. However, the pain he is experiencing provides another opportunity to move toward God. When Jonah realizes there is only one God who can save him from his suffering, he calls out to God. When he sang and prayed for the praise and joy of God's salvation, God spoke to the fish who vomited Jonah back into the water. At this point, everything seems to have worked out, but we learn from the stories that follow that the problem in the prophet's heart is still unresolved.

In today's text, Jonah did not truly repent. He simply prayed for a solution to the real problem he was struggling with. He praised and thanked God for His grace and salvation in words, but there was no repentance for his own disobedience. People pray to God when they are in trouble. They come out in the early morning of a few days to pray. But when the difficulties passed, was their inner person transformed? Even so, God does not forsake us because of His grac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8 주일말씀요약 Sunday Sermon Note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완고해지지 말라!

이철구 목사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예로 외국 식당과 달리 한국 식당에 가면 반찬은 당연히 메인 메뉴와 함께 따라 나옵니다. 만약 한식당에서 반찬을 유료로 하면 사람들은 "그 가게 서비스가 별로"라며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한식당에서 시작한 무료 반찬이 손님들에게 권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찬이 나오는 것에 대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해방시 켜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날마다 만나 를 주어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너무 놀랍고 신기해서 "이게 뭔가?" 하면 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생활 내내 같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 중에 감사와 감격은 다사 라지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고 모세에게 불평을 일삼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 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완고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 중에 이사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살 때는 집이 좁아 보여 답답했는데, 짐을 빼보면 크게 보이면서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삶은 늘 빡빡하고 답답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여유롭고 넉넉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없는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넉넉해 보이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의 심령에 짐이 없어서 넓어 보이는 것입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55:22).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짐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 짐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짐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맡길 때 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삶이 여유롭게 보이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늘 여유 없이 빡빡하게 사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심령이 온갖 집으로 가득 차 답답해 보입니다.

주께 맡기지 못하고 그 짐을 지려하니 육신적으로 힘들 뿐 아니라, 심령이 완고해졌기 때문 입니다. 그 결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적 분별력을 잃고 생명 길에서 벗어나 사망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해 전, 테네시 주에 살던 제럴딘 라르게이라는 60대 여성이 실종되었습니다. 2박 3일 일 정으로 애팔래치아산맥의 트레일 코스로 하이킹을 떠났다가 실종된 것입니다. 남편의 신고로 즉각 구조팀이 하이킹 코스를 수색했지만 어디서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그녀는 실종 후 2년여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감한 그녀는 일기장에 가족을 사랑한다는 글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 시체를 발견하는 분은 제 남편 조지와 딸 케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제가 사망한 사실과 제 시체가 발견된 곳을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흘려도 상관 없습니다. 꼭 선의를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 아닙니까? 라르게이는 처음트레일 코스에서 벗어나 길을 잃었을 때 이런 결과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험한 산지에서 트레일 코스는 생명길입니다. 그길을 벗어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영적 트레일을 정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코스에서 이탈하는 것을 생명 길에서 벗어나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임할 때 이 코스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보다 현실의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 영적인 굶주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신자들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영적인트레일에서 벗어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서로 바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서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가 채워감으로써 온전함을 증거해야 하는 관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개인의 능력으로 증거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연합으로서 증거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한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즉 몸을 보십니다. 그 안의 지체인 우리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도우면면서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November 월 Mon

니느웨 백성의 회개

Repentance of the people of Nineveh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나 Iona 3장



새505장(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부르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요나 3:1-10

- 1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르시되
- 2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 3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 읍이더라
- 4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 더니
- 5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 옷을 입은지라
- 6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 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 위에 앉으니라
- 7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 떼나 양 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 시지 말 것이며
- 8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 옷을 입을 것이 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 9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 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 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Reading insight

God calls Jonah again to fulfill God's plan.

Jonah 3:1-10

- ¹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the second time, saying,
- 2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call out against it the message that I tell you."
- ³ So Jonah arose and went to Nineveh,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Now Nineveh was an exceedingly great city, three days' journey in breadth.
- ⁴ Jonah began to go into the city, going a day's journey. And he called out, "Yet forty days, and Nineveh shall be over-thrown!"
- ⁵ And the people of Nineveh believed God. They called for a fast and put on sackcloth, from the greatest of them to the least of them.
- 6 The word reached the king of Nineveh, and he arose from his throne, removed his robe,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sat in ashes.
- ⁷ And he issued a proclamation and published through Nineveh, "By the decree of the king and his nobles: Let neither man nor beast, herd nor flock, taste anything. Let them not feed or drink water.
- 8 but let man and beast be covered with sackcloth, and let them call out mightily to God. Let everyone turn from his evil way and from the violence that is in his hands.
- **9** Who knows? God may turn and relent and turn from his fierce anger, so that we may not perish."
- ¹⁰ When God saw what they did, how they turned from their evil way, God relented of the disaster that he had said he would do to them, and he did not do i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 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9절) How did the people of Nineveh

How did the people of Nineveh react to Jonah's proclamation? (3:5–9)

우리들 삶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 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What are some things in our lives that we must turn away from?

God Momen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임스사랑의교회, TBS(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Standards are set by God

자,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2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이미 요나에게 주어졌던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신 것이 아니라처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임무가 그대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곳은 3일 동안 여행을 해야 할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 안에 들어가서 성한복판에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성경의 표현만 보자면, 마치하지 않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이 정말 성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니느웨 성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회개란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갖게 되는 소망이 있다면, 니느웨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더라도, 그 실행하시려던 것을 멈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 잘못을 그냥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 한 그대로 "Let us turn" 즉,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행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Now, Jonah has a second chance. "Get up and go to the great city of Nineveh, and deliver the message I have given you" (3:2).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is mission given to Jonah was the same one previously given to Jonah. Because he refused, God did not exchange it for something else, but the original will of God, the mission, was given to him. Now Jonah goes to Nineveh in obedience to God's Word. It was such a big city that he had to travel for three days. He finally enters the city and shouts in the middle of the city, "Forty more days and Nineveh will be overthrown."

If we just look at the expression in the text today, he seems to have no sincerity, as if he was forced to do so. But what is surprising is that the people of Nineveh repented and returned to God. Something that no one could have imagined happened in the city of Nineveh. Repentance is turning away from sin.

If there is any hope we can hold through this repentance, like the king of Nineveh's confession, it is that God sees our changes and stops doing what God originally intended to do. When the word of judgment fell to the king of Nineveh, he did not just admit his wrongdoing. As he said, "Let us turn," which led to the act of stopping and turning around from all the wrongs in life.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4	4	
u		

	_		
A	9	h.	
u	4	,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 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November 화 Tue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Jonah's wrath and God's mercy

통독본문 Reading Plan

요나 Iona 4장



새496장(통260장) 새벽부터 우리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니느웨의 구원을 못마땅해하는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 다. 그리고 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봅니다.

요나 4:1-11

1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 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 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3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 시니라

5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 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6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 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 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 쿨을 갉아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8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호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9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 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10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 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 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 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Jonah's displeasure with Nineveh's salvation is recorded, but he experiences the mercy of God who persuades him.

Jonah 4:1-11

- ¹ But it displeased Jonah exceedingly, and he was angry.
- ² And he prayed to the LORD and said, "O LORD, is not this what I said when I was yet in my country? That is why I made haste to flee to Tarshish; for I knew that you are a gracious God and merciful,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and relenting from disaster.
- ³ Therefore now, O LORD, please take my life from me, for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 4And the LORD said, "Do you do well to be angry?"
- ⁵ Jonah went out of the city and sat to the east of the city and made a booth for himself there. He sat under it in the shade, till he should see what would become of the city.
- 6 Now the LORD God appointed a plant and made it come up over Jonah, that it might be a shade over his head, to save him from his discomfort. So Jonah was exceedingly glad because of the plant.
- ⁷ But when dawn came up the next day, God appointed a worm that attacked the plant, so that it withered.
- 8 When the sun rose, God appointed a scorching east wind, and the sun beat down on the head of Jonah so that he was faint. And he asked that he might die and said, "It is better for me to die than to live."
- ⁹ But God said to Jonah, "Do you do well to be angry for the plant?" And he said, "Yes, I do well to be angry, angry enough to die."
- 10 And the LORD said, "You pity the plant, for which you did not labor, nor did you make it grow, which came into being in a night and perished in a night.
- 11 And should not I pity Nineveh, that great city, in which there are more than 120,000 persons who do not know their right hand from their left, and also much cattl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요나를 설득하시기 위한 하나님 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6,8절) What is God's method to persuade Jonah? (4:6,8)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 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누군가 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does God love you? Why do you hate someone?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분노의 역류 The outburst of anger

요나서가 단지 '니느웨의 구원'이야기를 전하려고만 했다면, 본문은 3장에서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니느웨의 구원을 못마땅해 하며 화가나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니느웨 백성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그렇게 싫어한 이유는 3장 10절에서 밝힌 대로,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시스로 도망갔던 것이었죠. 그가 왜 그렇게까지 니느웨 백성을 미워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진 증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마저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대답은 비워둔 채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아마 그 대답은 우리가 해야 할 듯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스도인 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켜 나가야 할까?

If the book of Jonah was merely to tell the story of "the salvation of Nineveh," the text should have ended with Chapter 3. However, in Chapter 4, Jonah suddenly disapproved of Nineveh's salvation and became angry. Why was Jonah so angry? It was out of hatred for the people of Nineveh. Verse 1 of today's text says, "But to Jonah this seemed very wrong, and he became angry."

The reason he hated it so much was that, as revealed in 3:10, Jonah hated that the people of Nineveh would repent and dodge God's disaster. So, despite being a prophet, he disobeyed God's Word and ran away to Tarshish. The Bible does not clearly explain why he hated the people of Nineveh so much, but it is clear that his hatred made him disobey God's Word, and even his prayers of praise and thanksgiving to God became meaningless actions.

However, God's grace and mercy are beyond our imagination. Yet again, God persuades Jonah. Jonah's response after hearing God's Word is unknown and the book of Jonah ends. Perhaps the answer is ours. Who am I, and how should we protect ourselves as Christians?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0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기도 first moment Pray

묵상 reading & QT 한말씀 One Word

단숨기도 One Prayer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facebook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레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kumcdevotion@gmail.com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첫째 주 소그룹 모임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Ⅰ 에스겔 37:1-14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I 에스겔 40:1-16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착각하지 맙시다 I 아모스 1:1-2, 2:1-8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주가 일하시네 I 요나서 3:1-10

이 뼈들이 살 수 있을까?



새183장(통172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새191장(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새197장(통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 여는 질문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당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2 본문 이해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이 죽어진 채로 보내져야만 했던 그 삭막하고 두려웠던 공간,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침묵하고 있을 그때, 그 적막을 깨는 하나님의 물음이 그에게 던져집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의 환상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는 그 마른 뼈를 보시는 하나님은, 그 뼈를 생명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너희 마른 뼈 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4~6).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이어지며,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러나 생기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전합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9). 그리고 그렇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살아나 제 발로 일어서고 보니 엄청나게 큰 군대

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은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을 때, 그들은 마른 뼈 골짜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도 없고, 어떤 꿈과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리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혹 그것이 마른 뼈 골짜기 같이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에게도 동일한 물음을 던지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 겠느냐?"

3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께서는 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려 하실까요? (13-14절)
- 2.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했을까요? (3절)

4 삶속으로

- 1. 여러분의 삶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 2.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위한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5 암송 구절 - 에스겔 37: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 자녀와 나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새452장(통505장) 내 모든 시험 기도의 제목 새455장(통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복음성가) 주를 위한 이 곳에

1 여는 질문

당신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2 본문 이해

COVID-19은 전 세계의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장이 멈추고, 상점들은 닫히고, 사람들의 모임은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역시 팬데믹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했고, 지금 에서야 비로소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지만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일반화되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수 있으니 굳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신앙 생활하기에 문제없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교회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예배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서의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우상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면서, 성전 또한 파괴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역시 사라졌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희망

도 없습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는 그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속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에 의해 디자인되어지고 만들어질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팬데믹이후, 우리들 역시 성전에 대해, 예배에 대해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Post Pandemic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도 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3 말씀 속으로

- 1.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어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4절)
- 2.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회복을 위해 권면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전 4:16)

4 삼속으로

- 1. 당신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 2. 교회안에. 가정안에 예배의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5 암송 구절 - 에스겔 40:4

"인자야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6 자녀와 나눔

당신은 예배를 통해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맙시다



새445장(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새446장(통500장) 주 음성 외에는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1 여는 질문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나요?

2 본문 이해

선지자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으로 선지자의 자녀가 아닌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남 유다의 왕은 웃시야(791-739)였는데 그는 남유다를 52년가이나 통치하면서 블레셋의 '아스돗'과. 에돔의 '구르바알'까지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러보암 2세(793-753)였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을 41년간 통치하면 서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까지, 남쪽으로는 염해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즉,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두 나라 모두 화려한 전성기를 보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하셨기에 나라가 강하고 부하게 되었다고 여겼으며, 앞으로도 여호와의 날이 오면 더욱 큰 승리를 가져다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것들은 꽤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사회적/종교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교만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지위와 권력을 뽐내며 약한 사람들을 경멸하며 착취했습니다. 따라서 그 땅에는 하나님의 정의도 없었고, 공의도 없었으며, 그저 불의와 우상숭배만이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사실 그의 이름처럼 (아모스 - '짐 지는 자'라는 뜻) 무거운 짐 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담대히 맡겨진 사

명을 감당합니다. 아모스는 그들의 사회적인 부정과 종교적, 도덕적 퇴폐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북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미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더 이상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 아닌 재앙의 날이 될 것임을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어느 때보다 물질적인 풍요함을 누리고 있는 이 때, 쉽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때에, 혹시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자로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3 말씀 속으로

- 1.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을 이야기합니까? (1:3-2:5절)
- 2. 유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서너 가지의 죄는 무엇입니까? (2:4절)

4 삼속으로

- 1. 당신의 모습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 당신은 사회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 암송 구절 - 아모스 2:4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6 자녀와 나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까요?

∕₽₹

주가 일하시네



새459장(통514장) 누가 주를 따라 새461장(통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새498장(통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1 여는 질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2 본문 이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나라가 적국이고, 악과 음란이 가득한 철천지 원수의 나라인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0일동안만 숨어 있으면 그냥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겁니다. 요나는 그 곳을 가기도 싫었을 뿐 아니라, 혹시 자신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들이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망갔던 건데, 결국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제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3:2).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이미 요나에게 주어졌던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임무가 그대로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다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 안에 들어가서 성 한복판에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저 전해야 하니 이렇게 마지못해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에는, 니느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는 동물들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의 모습을 요즘의 모습으로 상상해 봅시다.

뉴욕 타임 스퀘어 한복판에서, 이상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외치자 마자, 쇼핑하던 사람들, 상점 주인들,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사람들,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통곡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는 방송국에서 촬영을 해서 보도했더니, 그보도를 본 사람들도 다들 회개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니느웨 성안에서 일어난겁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해 갖게 되는 소망이 있다면, 니느웨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보시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더라도, 그실했하시려던 것을 멈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왕에게 심판에 대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는 그 잘못을 그냥 느끼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 한 그대로 "Let Turn" 즉, 삶의 모든 잘못된 것을 멈추고 돌이키는 행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3 말씀 속으로

- 1.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장 2절)
- 2.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9절)

4 삼속으로

- 1.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을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 2.지금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5 암송 구절 - 요나 3:10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6 자녀와 나눔

누군가에게 용서받았을 때가 있으셨나요? 그 사람은 왜 당신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week 1

Can These Bones Live?

1 Opening Question

What is bothering you right now? What are you doing to solve the situation?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prophet Ezekiel is led by the Spirit of God into a valley full of dry bones. It speaks of a reality in which no hope can be found in the desolate and terrifying space that was dead without any change for a long time. Now, when everything is silent, God's question that breaks the silence is thrown at him. "Can these bones come to life?"

There is a reason why Ezekiel's vision is amazing. God sees the dry bones as living while we are so sure that they are dead. Ezekiel now preaches the Word of God in that valley. "You dry bones,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I, the Lord God, say to these bones. I will breathe life into you and you will live again. I will make you stretch out your tendons, and I will clothe you with flesh, and I will cover you with skin, and I will breathe life into you, and you will live again. Only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37:4–6).

And when the Word was delivered, the dry bones joined together, tendons stretched out over them, flesh grew, and skin was covered with flesh. But there is no life. Then, this time, God tells the living breath to convey the Word of God. Ezekiel tells us. "I, the Lord God, say to you. You, breath, blow from the four directions, and blow on these slain, so that they may live." (37:9) When the breath of life entered them, they came to life, and when they stood up on their feet. It was a huge army.

Today Ezekiel's vision tells us something clear. When the nation of Israel is cut off from God, they are like a valley of dry bones. There is no life in it, no dreams and no hopes. But

the only thing that saves is the Word of God. The promise given through these words is that God will restore life to the dead. Are there difficulties in your life? Does it look hopeless like a valley of dry bones? Today God asks you the same question. "Can these bones come to life?"

3 Into the Word

- 1. Why does God want to save Israel, which is like dry bones? (37:13–14)
- 2. When Ezekiel was asked whether the bones would come to life, what was his response? (37:3)

4 Into our Life

- 1. Do you have any experiences in your life where you can confess that God was the only one at work?
- 2. What is your plan to completely change your life?

(5) Memory Verse - Ezekiel 37:5

"Thus says the Lord GOD 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you, and you shall liv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ow much power do you believe God has?

Restore Worship

1 Opening Question

What does worship mean to you?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stopped gathering. Churches were not immune from the pandemic. Because we were unable to meet in the church building, we had to worship online. Churches are recovering little by little, but there are more people who have distanced themselves from the church than expected.

Now, as online worship has become common, more and more people say there is no problem in living a life of faith even if you do not go to church because you can worship even if you are not in the church you serve. But here we have to look at ourselves before God and look at the church. What kind of worship does God really want?

The temple and worship were special to the Israelites. They experienced God's presence in the tent of meeting and in the temple. But as time passed, the hearts of worshipers in the temple were no longer directed toward God. They worshiped God but at the same time took the ways of the world for their own good and accepted idols. Everyone said they were worshiping God, but they didn't become true worshipers.

As northern Israel fell by Assyria and southern Judah fell by Babylon, the temple was also destroyed, and the "temple" no longer existed for the Israelites. This meant that God's presence was also gone. Therefore, Israel had no hope without God. At this time, God fed Ezekiel the Word of God and told him to proclaim it.

God is inviting us into a new era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presence of God through

the Word. At the center of it is a new temple to be designed and built by God. After the pandemic, we too have a new understanding about the temple and worship. Now we are moving towards a new era called Post Pandemic and we are at a very important junction. "How can we restore worship?" What is clear is that the restoration of worship will also impact the restoration of our lives. "I earnestly worship and pray to the Lord so that I can become that worshiper the Lord is looking for."

3 Into the Word

- 1. What did God show Ezekiel for him to convey to Israel? (40:4)
- 2. What did apostle Paul counsel for the restoration of the holy life of the Corinthian church members? (1 Cor. 4:16)

4 Into our Life

- 1. How do you worship God these days?
- 2. What do you think are ways to restore worship in your home and your church?

(5) Memory Verse - Ezekiel 40:4

"Son of man, look with your eyes, and hear with your ears, and set your heart upon all that I shall show you, for you were brought here in order that I might show it to you. Declare all that you see to the house of Israel."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do you see, hear, and think through worship?

week 3

Let's Not Misunderstand!

1 Opening Question

Are you living "a life after God's own heart"?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prophet Amos was from Tekoa in southern Judah and was not a child of a prophet but a mulberry grower. When Amos received a revelation from God, the king of southern Judah was Uzziah (791–739), who ruled southern Judah for 52 years and occupied Ashdod of the Philistines and Gurbaal of Edom. The king of northern Israel was Jeroboam II (793–753), who ruled northern Israel for 41 years, extending his territory to the north to the mouth of Hamath and to the south to the Salt Sea, occupying the largest territory since Solomon.

In other words, when Amos was active, Judah in the south and Israel in the north were both enjoying their splendid heyday. All the Israelites thought that the nation had become strong and rich because God had blessed them, and they thought that the day of the Lord would bring even greater victories in the future. These were quite plausible but in reality, both Israel in the north and Judah in the south were socially and religiously corrupt. Those in possession of wealth and power grew arrogant and abused the poor, boasting of their status and power, and despising and exploiting the weak. Therefore, there was no justice of God, no justice, and only injustice and idolatry prevalent in that land.

Declaring God's judgment on Israel, which is full of sin, is, in fact, a heavy burden as his name reflects (Amos – meaning 'bearer'). But Amos boldly takes on the mission entrusted to him. As Amos sharply criticizes their social injustice and religious and moral decadence, he prophesies that God's judgment will surely come. He declares that this judgment will not be limited only to northern Israel, but will extend to all the nations around it. In other words, no more misunderstanding.

To the people of Israel who didn't give God true worship and did not practice God's justice, Amos warned that the day of the Lord would not be a day of victory but a day of disaster if they did not obey God's word and turn from their sins. How is your life now? Are you perhaps mistaken? At a time when you are enjoying material wealth more than ever before, at a time when you can lead a life of faith easily and comfortably, are you living as a hypocrite before God without realizing it?

3 Into the Word

- 1. Amos says that judgment will come not only on northern Israel, but also on neighboring countries. What countries is he specifically talking about? (1:3-2:5)
- 2. What were the three or four sins that caused Judah to be punished by God? (2:4)

4 Into our Life

- 1. What part of you may not be pleasing to God?
- 2. What are you doing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marginalized?

5 Memory Verse - Amos 2:4

"I will not revoke the punishment, because they have rejected the law of the LORD, and have not kept his statutes, but their lies have led them astray, those after which their fathers walked.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As a Christian, what must we do in this world to please God?



The Lord is at Work

1 Opening Question

Is God in control of your life? So, do you know what God want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Despite God's command to go to Nineveh and deliver the message of judgment, Jonah tried to escape from God in a boat bound for Tarshish. Nineveh is the capital of Assyria. From Jonah's point of view, that country is an enemy, a country full of evil and lewdness. So, he thought that if he hid only for the 40 days that as God said, the country would just be destroyed. Not only did Jonah not want to go there, but he wondered if they heard his message and repented, God might not destroy them.

So he ran away, but eventually he encountered a storm, was thrown into the sea, and spent time repenting in the belly of a big fish that God had prepared. Now, Jonah has a second chance.

"Arise, go to Nineveh, that great city, and proclaim to them what I have commanded you." (3:2) The important thing here is that this mission given to Jonah was exactly as the first that had been given to Jonah. It wasn't that God gave him something else because he refused. The exact will of God first given to him, and the same task, was given to him again. Now Jonah goes back to Nineveh by obeying God's Word. He finally enters the city and shouts from the middle of the city, "In 40 days, Nineveh will be overthrown." Jonah exclaimed reluctantly because he had to preach but what is surprising is that the people of Nineveh repented and returned to God. In verses 5 to 9, the people in Nineveh, including the king, all the servants and people proclaimed a fast and repented. Even all the animals fasted. Hello, do you understand this scene? Let's imagine what it was like back then by imagining what it might look like today. In the middle of New York's Times Square, as soon as

a man in strange clothes shouts that God will bring judgment, shoppers, shopkeepers, people walking on the street and working people all gather and start weeping. After seeing this, the broadcasting station films it and reports it, and everyone who sees the report repents. Something no one could have imagined happened in Nineveh. Repentance is turning away from sin. Any hope we have is through repentance. God sees our changes like the king of Nineveh's confession and stops doing what God originally intended to do. When the word of judgment fell on the king of Nineveh, he didn't just feel his guilt. As he said, "Let us turn" which means to stop all wrongdoings in life and to turn around. God gave the saving grace for the people of Nineveh, and they were saved by confessing their sins and repenting. Hallelujah!

3 Into the Word

- 1. Why did Jonah flee to Tarshish? (4:2)
- 2. How did the people of Nineveh respond to Jonah's proclamation? (3:5-9)

4 Into our Life

- How does John Wesley explain how you may experience God's love?
 How did you experience that grace? (God's grace)
- 2. What do you need to repent of now?

5 Memory Verse - Jonah 3:10

"When God saw what they did, how they turned from their evil way, God relented of the disaster that he had said he would do to them, and he did not do it."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Have you ever been forgiven by someone? Why do you think that person forgave you?

MISSIONARY OF THE MONTH

By Christie R. House (The senior writer/editor for Global Ministries, Mission Engagement.)

One way to understand the wideness of mission work is to delve into the life journeys of United Methodist missionaries serving full-time through Global Ministries. They come from many places in the world and they serve in many places, but they also serve in all kinds of capacities and occupations.

One of the workshops offered at the April 2019 Bicentennial Conference, sponsored by Global Ministries and Candler School of Theology in Atlanta, was a session on the topic of "New Mission Work in Contemporary Methodism." This was led by three current missionaries who serve in ministries of different ages, traditions and countries. In this three-part series on the breadth and impact of mission ministry, the Rev. Andrew Lee, serving in Cambodia, Kristi Painter, in the U.S. and Katherine Parker, in Nepal, will share stories about what they do as missionaries, touching on the many different facets of God's mission work. The first story focuses on the work of Andrew Lee.

The Rev. Andrew Lee started off his session by describing his journey from being a pastor in Hawaii to a country coordinator for the Methodist Church in Cambodia. Lee was born and raised in South Korea and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to attend university in Hawaii. After completing his Master of Divinity, he became a clergy member of the California-Pacific Conference, returning to his Hawaiian home as a pastor. He seemed quite surprised by his leap of faith to become a missionary. "I was a pastor in Paradise. Who would leave that?" he asked. The church he last served in Kaneohe doubled its size during his tenure, but with God's insistence, Lee, his wife Janice and their two daughters



The entire UMC missionary team in Cambodia.Back row, left to right: Ken Cruz, Clara Biswas, Samuel Om, Andrew Lee. Front row: Helen Carmarce, Marilyn Chan, Esther Gitobu.

PHOTO: COURTESY METHODIST CHURCH IN CAMBODIA

found themselves in Phnom Penh.

"Welcome to the country of wonders and surprises!" was how their missionary colleague, Esther Gitobu, greeted the Lees when they arrived in Cambodia. Lee admitted that, at first, his family felt like they had landed in a 1980s Jackie Chan movie. What struck them at first were things like a motorbike transporting six family members, or the speed and chaos of traffic. But in the two years they have lived there, Lee has discovered deeper truths and made more mindful observances.

"Cambodians are special people," he explained "They show you respect before you've earned it, and they offer forgiveness before you've asked for it. That is the DNA of the Cambodian people. Many of them are not Christian, but Buddhist. Yet, they are more forgiving, respectful and embracing than Christians in many ways."

There is room in the Cambodian culture for Christianity, and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he said, so that people may be filled with the wonderous work and love of Jesus. The Cambodian Mission Initiative is

MISSIONARY OF THE MONTH



Serena (left) and Reina Lee on a trip to historic Ankhor Wat in Cambodia. PHOTO: ANDREW LEE

an evangelistic outreach of Global Ministries that began in the 1990s and was established officially in 2003 with four other Methodist communities working in Cambodia: the Swiss-French United Methodist Church, now represented by the

mission agency Connexio; the Methodist Church in Korea; the Methodist Church in Singapore and the World Federation of Chinese Methodist Churches. The various missions were working separately in Cambodia with groups of refugees, who had discovered Christianity in exile, returning home after the terror of the Pol Pot regime subsided.

Traditions made new

In the past two decades, missionaries have developed important outreach ministries that serve the Cambodian people. These programs include a ministry for marginalized women in the society (coordinated by missionary Marilyn Chan); Community Health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CHAD, until recently managed by missionary Kennedy Cruz); volunteer ministries that connect partner churches to local churches (missionary Esther Gitobu); a Street Children's ministry for children living in slum areas of the city (missionary Clara Biswas) and Bible school ministry (missionary Samuel Om).

Lee told the story of a 30-year old mother named Hem San, living

in the countryside of Siem Reap. She raises four small children alone because her husband took off for Thailand and was never heard from again. Though she doesn't read or have regular income, she wanted to start a vegetable business to support her family. The women's ministry team decided to help her in this season of life, providing start-up supplies and funding. "For the last 20 years, we have supported many women like Ms. Hem San in rural communities through a livelihoods program; we also have led educational and leadership training for Methodist women."

The livelihood,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water and sanitation (WASH) projects coordinated by CHAD were initially developed with the help of the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 Today, CHAD provides relevant health information and training according to each community's needs – whether that might be raising chickens, opening a cow or rice bank, working on the stigma of HIV or learning better methods for growing crops. Yet, one of CHAD's greatest contributions is helping people of this traumatized country learn to work together and trust one another once again as they organize and plan for the common good in their villages. CHADs programs reach about 3,000 people.

Education in new mission initiatives is often as important today as it was when missionaries first went out to found churches, schools and hospitals. The Bible school was one of the first institutions established by the coalition of Methodists in Cambodia. The Cambodian church has just recently opened two new dorms for young women.

Contact Info: donationhelp@umcmission.org

모든 기도는 치유력을 가진다

김영봉목사(와싱톤사귐의교회, VA)



예수님은 기도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제 자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다.

바울은 자신이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롬 15:18) 야고보의 경우, 병자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해 주라고 권면한다.(약 5:14-15)

이 같은 전통에서 보면 병자 자신이 혹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 땅한 일이다. 한때 '과학적'이라고 자처하던 사람 들이 그런 기도를 미신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제 는 오히려 의사들이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는 추세 다. 기도와 영성생활이 '대체 의학(alternative medicine)'으로 인정받고 있고 의학자들에 의해 임상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지나쳐, 현대 의학의 치료를 거부하고 기도에만 매달리는 데 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는 말은 진실이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건강에 이롭도록 만들어진 약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종이다. 그러므로 필요한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기도와 의약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질병에 걸리면 먼저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현대 의학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병의 원인과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나면, 의사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의사 처방에 따라 효과적인 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보완적인 치료 즉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도 생활을 병행하는 게 좋다. 치유기도는 이렇게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병행되어야 한다. 약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담당 의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라. 벤자민 프랭클린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라고 말했다. 의사에게는 기분 상하는 표현일 수 있으나 진정한 치료자가 하나님이라는 진실은 부인할 수 없다.

아울러 '하나님의 치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바로 아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치료는 '단번에' 기적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단번에 씻은 듯이 병을 낫게 해달라는 청원은 한두 번 간절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함께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중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청원 기도를 통해 즉각적인 치료의은혜가 주어지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점진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하면 된다. 즉각적인 치유와 점진적인 치유 중 어느 것이 더 큰 은혜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에게는 즉각적인 치유가 더 큰 은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긴 병상생활 중 깨닫는 귀한 진리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선물이다.

치유기도 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 첫째, 치료의 전 과정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해 기도하라. 때로는 병과 함께 살아야 할 때도 있다. 일 정 기간 동안 질병과 함께 사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경우, 질병에서 눈을 돌려 하나 님을 보아야 한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병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 경우, "주여, 저로 하여금 주님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통해 저를 단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정금같이 단련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환자에게 놀라운 힘을 준다. 죽음의 위협과 고통 속

에서도 깊은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내적 평안은 질병 치료에 매우 유익하다. 때로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다. 설사 임종을 맞는 상황이 온다 해도, 평온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성령과 교제하며 지내온 사람들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 1:21)'는 고백에 이른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흔쾌히 그 결정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답게 죽음을 맞이한다.

둘째, 과거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삶을 재조정하라.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질병은 피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생활 습관이나 스트레스, 환경 등에 의한 질병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병의 원인을 알아내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치유기도는 병의 원인을 알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치는 결과로 이어져야한다.

셋째, 치유적 환경을 조성하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습관을 고치는 데서 한 걸음 나아가 생명의 기운을 돋구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묵상하거나 좋은 음악을 듣고 자연을 가까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넷째, 중보기도 네트워크를 만들라.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말고 기도의 동역 자들을 구하는 게 좋다. 그들의 영적 지원을 받으며 투병할 때 하나님의 영과 더욱 친 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다섯째,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좋다. 자신이 감당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봉사한다면 오히려 힘을 얻고 살고자 하는 의욕도 솟아나게 될 것이다.

'치유'와 관련, '안수기도'에 대한 신비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안수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하거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행 8:17, 행 28:8) 문 제는 안수를 받아야만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이다.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안수를 통해 치유받은 일보다 안수 없이 치유받은 이야기가 더 많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수는 예외적인 일이었고 주로 말씀으로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안수를 치유기도의 유일한 수단이나 가장 능력 있는 기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안수는 기도의 한 방식이다.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고 안수하매(행 28:8)"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도 없이 안수만을 말하지 않는다. 이는 안수가 기도하는 가운데 행해지는 부수적 행동이라는 뜻이다. 기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으로서 손을 얹으면 기원의 심정은 더욱 간절해진다. 그것이 기도의 힘을 강화시킨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손을 잡거나 안수하는 것은 추천할만한 일이다. 그것을 마술적으로 오해하는 일만을 경계할 뿐이다.

불행하게도 질병이 깊어져시한부를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기도하는 방식은 동일하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 치유를 위해 세 번 기도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응답이 없자 질병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께 불만이 없었다(고후 12:8). 이 원리가 시한부 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전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런 다음 종합적인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아주 절망적이지만 않다면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병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치료율이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야한다. 성령과 동행하며 병을 다스리다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실패도 죽음도 없다.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미덕이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고 할 때 미련 없이 삶을 정리하고 담대하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광야를 읽다10

끝날 듯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 광야

이진희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이를 읽다〉 〈광아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고로나 광야를 벗어나는가 했더니 다시 코로나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다 지나고 가나안에들어가는가 보다 했는데, 다시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오면서 광야가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언제 였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올라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 이 그들에게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하셨다.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더 살게 하셨다. "너희는 내일 돌이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민 14:25).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가 끝나는 것이었는데, 그랬으면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그만 다시 광야로 돌아가 40년을 더

살아야 했다.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hate 했다고 말씀하셨다.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들이니리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민 14:31).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든 이집트든 광야만 벗어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 후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 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는 코로나 광야가 종식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저 빨리 이 광야가 끝나기 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광야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집트로 돌아가든 가나안으로 들어가든 상관이 없다. 옛날로 돌아가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든 관계가 없다. Normal로 돌아가든 New Normal로 들어가든 이 광야만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광야로 전 세계를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으셨을 것이다. 우리를 어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 들어오게 하신 것일까? 우리가 그 가나안에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이 광야는 쉽게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의 광야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못한다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돌고 돌아야 할지도 모른다. 끔찍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 (바벨론포로기의광야)

●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망하게 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바벨론 강변에서 무심히 흘러 가는 강물을 바라보며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고 한숨만 쉴 수는 없었다. 그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전 대신에 회당을 세웠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였다. 그리고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구약 성서의 대부분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기록되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었다. 랍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쳤다.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이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은 바알을 숭배했다. 그래서 하나 님은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그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에게 돌아왔다. 회당을 세우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영적인 르네상스가 일어난 것이다. 영적인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나라가 망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난 다음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신혼을 경험한 곳이 어디였는가? 가나 안? 아니다. 광야였다. 바벨론 포로기의 광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가장 친밀하고 행복한 때였다. 이러한 광야를 통과한 다음 이스라 엘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회복하게 된다. 다시 무 너진 나라(가나안)에 꽃이 피고, 광야가 꽃처럼 피어나고, 광야에 샘이 터져 나오고 광야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울창한 숲이 생기고 광야가 노래하고 광야가 춤을 추게 되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되게 하셨던 것이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 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호 2:14-15).

〈중세 유럽의 흑사병 광야〉

13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 인구의 1/3이 죽었다. 루터도 두 동생을 잃었다. 인구수가 회복되는 데 300년이 걸렸다. 인구의 1/3 이 죽어 노동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임금이 5-6배로 올랐다. 농노 들은 자유민이 되고 영주 계급이 무너지게 되고 중세 봉건주의가 몰 락했다.

중세 시대는 카톨릭과 정치, 교황과 황제/귀족이 결탁을 이루었다. 교회(카톨릭)은 말할 수 없이 타락했다. 페스트로 인해 귀족 사회가 무너지면서 교회가 지배하는 시대도 끝나고 타락한 중세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그러면서 르네상스/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타락한 교회/교권주의가 무너지고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다. 광야를 통과한 다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다. 인문학적인 르네상스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르네상스(회복, 부흥)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교회가 가장 번창하던 중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였다. 그러나 페스트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기 시작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아골 골짜

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신 것이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호 2:14-15).

〈코로나의 광야〉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변화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중에 하나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사탄(?)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지만, 그래서 그가 성공한 줄 알았지만, 그 대신 수억만 개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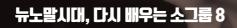
이런 일은 이미 2천 년 전에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무너졌다. 유대인들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철저한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게 되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게 되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신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대신수천수만의 성전이 생기게 되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 점심때까지 밥을 먹었던 식탁이 안식일 저녁에는 제단으로 바뀌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었다. 식탁 위에촛불이 성전의 메노라(촛대)가 되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서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제사가 되었다. 제사장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신 랍비들이 그자리를 대신해서 성경을 가르쳤다.

2천 년 전에 무너진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대 인들은 2천 년 동안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왔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 려왔다.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었다. 성전이 가 정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것이 유대교다. 가정이 성전이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 는가?

이 코로나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면, 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이 광야—아골 골짜기와 같은 광야가—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게 될 줄로 믿는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광야)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호 2:14-15).

3 그런데 왜 이 코로나 광야가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 끝나지 않는 것일까? 왜 자꾸 곧 코로나 광야를 빠져나와 가나안으로 들어 갈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는 것일까? 아직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왜 우리가 이 코로나 광야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아야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길이 보일 텐데, 어쩌면 우리는 그 길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인지도 모른다.



건강한 속회(소그룹)를 위한 교제 - 코이노니아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건강한 속회(소그룹)는 실제적인 코이노니아(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훌륭한 속장과 속 회원들이 있고, 속회(소그룹)를 위한 제반 환경이 잘 되어 있어도 속회원들 간에 신뢰와 결속이 없고 지속적으로 모일 수 없다면 속회(소그룹)사역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속회(소그룹)의 신뢰와 결속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코이노니아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를 알아야 소속감이 생깁니다

코이노니아(교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회(소그룹) 의 탄생시기에 가장 중요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속회원들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고향, 성격, 어린 시절의 추억 등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여정과 앞으로의 비전과 소명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서로를 알게 되면 속회(소그룹)에 소속감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으므로 새로운 속회원을 맞이할 때마다 반복되더라도 서로를 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속장(소그룹 리더)은 자기소개를 위한 다양한 질문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소개 과정을 위한 질문의 예

- 과거 고향과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나누어 보세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를 출석하게 된 배경, 신앙의 친구)
- 현재 지금 나의 삶에서 만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미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와 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인가요?

취미 — 당신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무엇인가요? 최근 감명깊게 본 영화는 무엇이었으며, 무엇 때문에 감동을 받았나요?

기호 — 사계절 중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왜 그 색깔을 좋아하게 되었나요?

서로를 긍정하면 신뢰감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서로에 대한 긍정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소개한 이들에 대한 반응입니다. 서로에 대한 긍정은 구원의 진리를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수용과 긍정이 원칙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적인 수용과 긍정의 의사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 자기를 소개한 속회원은 자신이 이 속회(소그룹)의 구성원이고, 또 배려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속회원(구성원)들은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전적인 수용과 긍정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속회원들 모두가 지녀야 하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속회(소그룹) 안에서 친밀한 관계성과 신뢰감이 형성되며 이를 토대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앞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긍정해 주었다면 이제는 나와 너를 넘어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하여 나누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나눌수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도전의식이 생기게 해야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주어를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합니다.

-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한 삶 살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인가요?"
- 이러한 코이노니아를(교제)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신앙의 목

표를 설정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속회(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세상의 교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기소개를 통하여 소속감을 갖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에 대하여 전적인 수용과 긍정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계성을 가진 모든 지체들과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가게 되는 영적인 모임입니다. 속회원들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체험하게됩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믿음상(간증) 전체 분야 대상]

네 마음대로 마침표를 찍지 마라. (Part 1)

박현숙사모(가나연합감리교회, VA)

교회는 3월 첫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무의탁 교우의 장례가 있었던 주일이었다. 그의 시신은 누군가에 의해 발견되었다. 나는 연고지가 없는 분들의 장례를 수없이 모시면서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 슬픔에도 등급이 매겨지는 것을 보았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없는 것일까. 나와 남편은 여느 때처럼 최고의 예의와 최고의 대접으로 마지막을 보내드렸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교회를 몇 번 출석 했는지는 문제되지않았다. 무엇보다 비용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으므로 회의를하지 않아도 되었다. 나는 그 날 예배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공중에떠 있었다. 몸이 이상했다. 사물이 흐릿하게 보였다. 식은 땀을 비오듯 흘리다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나는 꼬박 한달을 옴짝달싹하지 못했다. 체중은 30파운드가 빠져 나갔다.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 혼잣말을 하 면죽음을 생각했다.

성도들이 몰라서 다행이었다. 제 살기들도 힘이들텐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다. 20년 동안의 미국살이가 녹아 내렸 다. "나는 장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장기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 어 주고 내 몸은 의학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실험실습용으로 쓰여지기를 바 랍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나를 위해 싸구려 관 한 짝도 마련하지 마시며, 누구도 찾아 오는 것을 사양합니다. 나를 위한 어떤 수고도, 기억하는 일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왔던 길로 조용히 가겠습니다. 살아 온 인생 전부가 감사였고 은혜였으므로 행복했습니다. 'Jesus remember me' Margie 할머니가 가시던 날 내가 불러 드렸던 짧은 이 찬양을 몇 번만 불러 주십시오."

4월이 익어갈 무렵 비틀거리며 교회로 향했다. 내가 기도하던 자리에는 방석이 그대로 있었다. 문단은 교회는 쓸쓸하기만 했다. 잔디는 허리춤까지 자라있었고 꽃나무들과 정원의 과수들은 내 고통을 아는지 모르는지 저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자기 이름과 얼굴을 내미느라 야단들이었다. "사람이나 자연이나 이름을 내고 싶은 것은 매 한가지구나" 중얼거렸다. 2020년 한 해, 코로나는 영화, '리바이어던'의 괴물을 연상하기에 충분했다. 하나님은 문명의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하여 '멈춤'을 선고하신 것이다. 욥의 고난 앞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이해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이상하게도 두렵거나 하지 않았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평안과 고요속에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었다.

교회는 북 버지니아 남단, 미국에서 두번째 큰 육군부대와 맞닿아 있다. '가나연합감리교회'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헐렁한 경계선으로 짐승들만이 경계를 허물며 넘나든다. 교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둘 람굴'과 다르지 않았다. 교인들은 외딴 섬에 떠밀려 온 사람들이었다. '땅끝, 랜드막!!' 나는 그곳에 있었다. 아둘람굴에서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오해의 생활화, 쏟아지는비난들, 멈추지 않는 싸움질'도 먹을 때에는 그쳤다. 나는 코가 넘치도록배불리 먹였다. 코로나 시기에도 누워 있던 한달을 제외하고 애찬관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이 용사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장수가 되었다. 17년이라는 짧은 교회 역사에 비하면 10년이 지난 교우들이 절반을 넘고 15년이 훌쩍 지난 교우들까지, 이제는 서로에게 피붙이가 되었다.

사회적 사교모임도, 비지니스 덕을 보기 위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빌려 줄 어깨도 없는, 모두가 강도만난 사람들이었다. 나는 개척멤버이자 목사의 아내다. 교회 100미터 근처에 쉘터가 있고 10분 거리에는 시니어 아파트가 있다. 근처에는 쓰레기 매립지가 있고 이전한

교도소가 가까이 있었다. 사람들은 한인교회를 상상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남편은 개척당시 여러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모두가 아니라고 했었다. 나도 그들 중 한사람이었다. 조감독님만은 "모두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니며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진리를 쫒아 가는 길" 이라고 말씀하셨다. 남편은 그 길을 선택했다. 무모한 결단은 사람보기에는 어리석은 일 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그 것과 달랐다. 성도들은 육두문자를 쓰며 싸우는 일이 빈번했고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다. 누구랄 것도 없었다. 상상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기암을 할만한 사건들이 잦아지면서 가슴 통증을 자주 느꼈다. 나는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녔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홈리스들, 행려인들, 시니어들, 병자들이 대부분 이었다. 들어주고 싸매주고 돌 봐주고.....주저하지 않았다.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다. 등록한 홈리스들을 돌보는 일도 쉘터에 음식을 나누는 일도 그와 나의 몫이었다. "왜 우리죠? 왜 우리교회 인가요?" 하나님께 물었다. 나는 내 고통을 감당하느라 그의 아픔을 보듬어주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도 위로 받지 못했다. 그런 그를 보면 나는 내가 아파 죽겠다고 말했다가도 참아 내야 했다. 나는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나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침상이 젖도록 땀을 흘렸다. 갈수록 사람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놓았다. 한번만 이사를 해보거나, 교회를 옮겨 보았으면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 KMC에 있었을 때, 타주에서 청빙이 있었다. 그 지역에서 두번째 큰 교회라고 했다. 남편은 어려운 교회를 두고 조건이 나은 교회로 옮기는 게 죄스러워 거절 했었다. 나는 UMC로 온 것을 후회했다. 한국에서도 딱 한번 교회를 옮겼다. 첫 파송지인 시골교회에서 서울의 한 대형교회의 부교역자로 이동이 전부였다. 이력서에 한줄 더써 넣고 싶은 것은 욕심이었다.

(12월호에서 Part 2로 이어집니다.)

{시분야소망상(1등)}

필사

추민욱(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IL)

두려운 마음을 잠재우려 억지로 억지로 꾹꾹 눌러 써보는 그분의 이야기…

하염없이 쓰다 보니 어느새 느껴지는 그분의 마음 다시 힘 나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68:4)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레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wwjd21st@gmail.com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66 만나실수 있습니다. 99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u>백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u>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신상만, 805-302-1706)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이지성, 719-570-0300)

•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권,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남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 Hawaii (하와이 주)

알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고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울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하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울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만, 217-417-2288)

• l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정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텐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징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백형두, 612-859-5882)

•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u>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u>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트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멜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검현석, 330-743-7020) 개통한인연합감리교회(임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한민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이하인연합감리교회(나옹철, 803-447-6186)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백연합감리교회(감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누가연합감리교회(소정일,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월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주요한,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이진희,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킬린우리연합감리교회(전대우, 254-245-8029)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성,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검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하인교회(김영휴, 703~448~1131)

•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성경진도표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영어번역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서준석 목사 (그린스보로 한인감리교회, NC)

❖ 주일 칼럼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한국) 박송수 목사 (워싱톤감리교회, MD) 홍성국 목사 (프렛빌 한인교회, AL) 이철구 목사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FL)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 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